

# 1인 미디어 괴롭힘 행위에 관한 TPB 확장 요인들\*

정체성 이론 관점에서 여대생의 도덕 심리적, 행동적 특성을  
중심으로

차유리 숙명여자대학교 미디어학과 초빙대우교수\*\*

조윤경 가천대학교 리버럴아츠칼리지 조교수\*\*\*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1인 미디어, 즉 인터넷 개인방송을 이용하는 여대생들의 괴롭힘 행위를 계획된 행동 이론에 입각하되 정체성 이론 관점에서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해당 괴롭힘 행위의 특성 및 계획된 행동 이론·정체성 이론적 요인들에 관한 문헌 검토를 선행했다. 이어서 기존 TPB 연구모형을 토대로 삼고 괴롭힘을 ‘언어폭력’과 ‘개인정보 유출’로 구분한 가운데, 정체성 이론 관점의 변인(온라인 참된 자아·도덕적 이탈·오프라인 괴롭힘 경험·1인 미디어 친 사회적 행동 경험 및 의도)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확장모형을 구성했다. 인터넷 개인방송을 일주일 평균 1회 이상 이용하는 여대생 대상 온라인 조사의 데이터(N=300)를 바탕으로 회귀 분석한 결과, 확장모형의 상대적 유용성이 확인되었다. 언어폭력 행위 의도 모형에 비해 개인정보 유출 의도 모형의 설명력이 높았고, 요인들 중 ‘재미용 괴롭힘 태도’, ‘도덕적 이탈’, ‘오프라인 괴롭힘 경험’이 비교적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냈다. 재미용 괴롭힘 태도와 개인적 정체성 측면에서의 ‘정당한 세상-자기 신념’ 간 상호작용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1인 미디어 이용자들의 괴롭힘 심리에 관한 이론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1인 미디어 교육 및 공익 캠페인 전략 구상 시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KEY WORDS** 1인 미디어 • 괴롭힘 • 계획된 행동 이론 • 정체성 이론 • 도덕 심리 • 행동적 특성

\* 이 논문은 ‘한국방송학회-롯데홈쇼핑 2019년도 신진학자 연구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yuri@sogang.ac.kr

\*\*\* choyk@gachon.ac.kr, 교신저자

## 1. 서론

‘유튜브(YouTube)’나 ‘아프리카 TV’ 같은 1인 미디어, 즉 인터넷 개인방송 커뮤니케이션 채널은 젊은 세대의 문화 플랫폼으로 간주되지만(이정민, 2018), 1인 미디어 괴롭힘 문제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상 중인 것도 사실이다(김유진, 2020; 이근아, 2020). 유튜버들 사이에서 특정인을 비난하는 영상을 의미하는 저격 영상의 유행도 그 예다. 저격 영상에서 공격 대상이 초성으로만 표시되는 등 대상을 특정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는 자신이 공격 대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공식적으로 항의조차 어려운 경우도 있다. 저격 영상은 구독자들 사이에서 채팅이나 댓글을 통해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동만이 아니라, 개인정보의 유출을 야기하기도 한다(김아미, 2019; 송윤지, 2019).

이러한 1인 미디어 괴롭힘은 사이버 괴롭힘의 일종이다. 사이버 괴롭힘(cyber bullying)은 행동의 공격적 본질에서 비롯된 적대성을 특성으로 하는 전통적 괴롭힘(traditional bullying)과 비슷한 면이 있되, 전자미디어를 통해 행해지는 공격 행위를 일컫는다(유재웅·조윤경, 2018; Menesini & Nocentini, 2009). 2019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3명 중 1명이 사이버폭력을 경험했다(방송통신위원회, 2019). 사이버 괴롭힘 문제로 ‘선플 SNS인권위원회’를 찾는 상담을 원하는 피해자의 99%가 일반인이다(방극렬, 2019).

사이버 괴롭힘은 피해자에게 불안감, 약물남용, 스트레스, 낮은 자존감, 우울증, 삶의 만족도 감소, 자살 생각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Wang, Wang, & Lei, 2019). 특히 청소년기 피해자들에게는 사회적 죽음(social death)으로도 인식될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서 물리적 폭력보다 더 큰 상해를 입히기도 한다(유재웅·조윤경, 2016).

청소년들 간에 SNS를 통한 사이버 괴롭힘의 심각성은 SNS이 보급되기 시작한 2010년 초반부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사이버 괴롭힘은 중기 청소년뿐만 아니라 대학생과 같은 후기청소년기의 연령집단에서 흔히 발생하며(Tosun, 2016), 트위터·페이스북·인스타그램 같은 일반 SNS만이 아니라 유튜브와 같은 1인 미디어에서도 자주 일어난다(Whittaker & Kowalski, 2015). 사이버 괴롭힘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을 청소년들이 이제 대학생이 되었다. 대학생은 대개 20대 연령층에 해당하는데, 1인 미디어에 대한 20대 연령층의 의존률은 높은 수준이다. 20대의 93.9%가 1인 미디어 콘텐츠를

츠를 시청하고(나스미디어, 2020), 59.2%가 검색 채널로 1인 미디어인 유튜브를 이용한다(나스미디어, 2019).

1인 미디어 공간에서는 이용자들이 원하는 콘텐츠의 제작·유포·수용이 비교적 동등한 관계 속에서 가능하므로, 1인 미디어는 일반 SNS와 유사점을 갖지만 일종의 방송 플랫폼으로서의 특성도 지닌다. 따라서 양자를 동일한 매체라고 볼 수 없다. 물론 1인 미디어는 광의의 방송 일뿐이고, 전통적 의미의 방송과도 구분된다. 1인 미디어 콘텐츠의 공익성으로는 ‘콘텐츠의 유용성·미디어 자유권·미디어의 공유가치’가 거론된다(권은정, 2019). 1인 미디어는 ‘방송’이 아닌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대상으로서 정보통신심의의 규정은 방송에 관한 심의에 비해 덜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다만 1인 미디어 공간에서는 누구든지 1인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것이 현실로, 1인 크리에이터로서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준 방송인’도 1인 미디어 공간에서의 ‘인터넷 이용자’로 간주될 수 있다(조재희·차유리, 2020). 이러한 배경에서 괴롭힘의 2차 가해 가능성은, 접근성 높은 1인 미디어 영상 스트리밍·채팅창·댓글창 기능 등을 통해 증폭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일반 SNS와 구분되는 1인 미디어상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경계가 요구되지만, 아직 1인 미디어 방송계에서는 다른 인터넷 업계에 비해 괴롭힘의 사전 예방보다 사후 조치에 중점을 둔다고 할 수 있다(윤지혜, 2020). 대표적 괴롭힘인 악성댓글 달기는 형사상 모욕죄나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고 해당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실형보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의 대상이다(방극렬, 2019). 온라인 공간의 반사회적 행동 특성들 중 주요한 것이 익명성과 반복성인데, 이 특성은 행동에 대한 후속적 중재를 어렵게 한다(Nocentini et al., 2010).

결국 인터넷 개인방송 생태계에서 1인 미디어 이용자 개인들 주체의 자정, 즉 예방 차원에서의 악플 방지 및 선플 달기를 도모하는 공중 대상 교육 캠페인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1인 미디어의 역사가 길지 않은 만큼, 해당 1인 미디어 교육 캠페인에 근거를 제공하는 학술적 논의가 국내 커뮤니케이션학 분야에서 활성화되지 않았다. 근래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개인방송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연구를 수행했으나 방점은 제도개선 방안에 두었다(이종관 외, 2018). 자율규제 배경에서 2020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탁 1인 미디어 심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가 수행되었지만, 해당 교육의 대상은 이용자가 아니라 1인 크리에이터였다(조재희·차유리, 2020).

물론 사이버 괴롭힘은 현대사회의 중대한 위협 문제이므로(Menesini & Nocentini, 2009), 인터넷에서의 안전성 촉진에 기여하는 연구는 시급한 연구 과제들 중 하나로 취급되어 왔다(Sarmiento, Herrenra-Lopez, & Zych, 2019). 이러한 맥락에서 사이버 괴롭힘에 관한 국내 커뮤니케이션학 연구자들(예, 이정기·우형진, 2010)은 계획된 행동 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이 괴롭힘 문제를 대체적으로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며 이 연구에 시사점을 준다.

이때 우리는 최근의 1인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및 반(反)사회적 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들도 함께 고찰하면서, 1인 미디어 괴롭힘 문제를 오로지 특정 시공간 단절적인 반사회적 커뮤니케이션 문제에 국한하여 현상을 이해시킬 때 봉착하게 되는 TPB 문제의 실마리를 이용자 주체인 개인들의 정체성과 연관시켜 찾아보고자 한다. 1인 미디어라는 익명적, 상호작용적 매체 환경에서의 괴롭힘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정체성과 관련된 심리 및 행동적 특성에 대해서도 적극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타인과 관계를 맺고(최윤정, 2020), 자기 신념에 따라 살고자 하는 자아 일관성(self-consistency)의 욕구를 가지는데(손경원, 2014), 디지털 환경에서는 해당 욕구가 매체 특성상 충족되기가 수월하기 때문이다. 실제 반사회적 행동 연구자들은 비도덕적 행위인 사이버 괴롭힘이 가해 주체인 개인들의 자아 유지 기제와 관련된 심리적 특성, 일상의 폭력 경험 등과 불가분의 관계라는 점을 밝혔다(예, 김신아·방은혜·한유선, 2017). 개인의 정체성은 괴롭힘의 요인으로 여겨진다(장미향·성한기, 2007). 개인들은 자아에 대한 부조화 해소의 수단으로 1인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데, 1인 미디어 괴롭힘 같은 반사회적 행동도 가해자 개인들의 주관에서 반사회 커뮤니케이션으로 규정되지 않기도 한다. 사이버 괴롭힘의 가해자들은 가해 경험의 정도를 두고 ‘장난인데 민감하게 반응하였다’고 평가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주류라고 보고된다(이승미, 2014). 국내 사이버 괴롭힘 연구자들이 가해자 개인들의 주관적 동기를 고려하며 연구를 수행해왔다는 점(예, 유재웅·조윤경, 2016)에 비추어보더라도 그렇다.

정체성 이론(Identity Theory; Burke & Stets, 2009; Stryker & Burke, 2000)에서는 자아(self) 개념을 중시하는데, 그 뿌리는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에 있다.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가들은 개인들에게 내포된 자아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거쳐 형성되고 유지되며, 다중정체성으로 구성된다고 가정한다(Asencio & Burke, 2011). 정체성 이론

에서는 이 다중정체성이 자신의 지각과 부조화스럽거나 불일치하지 않도록 입증하는 개인들의 행동방식에 초점을 맞춘다. 정체성의 일종인 도덕적 정체성(moral identity)은 도덕에 관한 인지적·감정적 측면이 통합된 자아개념의 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데, 개인들은 이 도덕적 정체성에 따라 동기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행동을 하며 기존 정체성 체계를 안정시킨다(Hardy & Carlo, 2005; Reed, Aquino, & Levy, 2007). 해당 관점에서는 개인들이 주체가 되는 행동방식 상의 문제도 대개 정체성 및 도덕적 동기화에 관한 논의로 귀결된다(이정렬, 2019). 결국 정체성 이론적 접근에서는 1인 미디어 괴롭힘에 관한 TPB 모형의 것과 구분되면서, 이론적 상호보완 관계인 도덕 심리 및 행동 관련 요인들을 망라하는 게 가능하다.

종합하여 이 연구에서는 1인 미디어 괴롭힘 행위 의도가 어떤 요인들에 의해 형성될 수 있는지에 대해 정체성 이론 접근에서 확장된 TPB 모형을 통해 살펴보고, 어떤 도덕 심리적·행동적 특성들이 강조돼야 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때, 1인 미디어 이용자인 대학생은 간과될 수 없는 대상이다. SNS에서 사이버 괴롭힘의 가해자·피해자, 또는 방관자였을 Z세대들이 대학생이 되어 어느 세대보다 1인 미디어를 활발하게 이용 중이기 때문이다. 단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 중에서도 여대생 집단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데, 첫째, 사이버 괴롭힘의 양상은 성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예, Sun, Fan, & Du, 2016; Gao, Zhao, & Mcjinkin, 2016), 둘째, 신체적 또는 물리적 폭력과 구분되는 관계적 공격성은 여성에게서 발생하기 쉬운데(Crick & Grotpeter, 1995), 1인 미디어는 관계적 상호작용이 활성화되기 쉬운 환경이라는 점(김해원·강혜원·백지연, 2018; 최윤경, 2020), 셋째, 사이버 괴롭힘의 정신건강 상 피해 자각 수준은 여성의 경우 높다는 점(Campbell et al., 2013) 등에 착안했다. 그리하여 우리는 여대생 집단을 대상으로 TPB의 확장 가능성을 이론적·실증적 차원에서 모색하고, 1인 미디어 교육 및 캠페인 실무 차원에서 그 확장모형이 이바지할 수 있는 지점을 구체화해볼 것이다.

## 2. 이론적 논의

### 1) 여대생의 1인 미디어 괴롭힘 유형별 의도

#### (1) 1인 미디어 괴롭힘 유형별 의도: 언어폭력 및 개인정보 유출 의도

이 연구에서 ‘1인 미디어 괴롭힘 의도’란 사이버 괴롭힘<sup>1)</sup> 의도의 일종으로서, 1인 미디어를 이용하는 개인 주체 자신이 타인(들)에게 해를 입힐 것을 의식한 정도를 일컫는다. 선행연구에서 사이버 괴롭힘 의도(cyber bullying intention)는 사이버 공간의 “가해자가 타인(들)에게 해를 입힐 것을 의식한 정도(Menesini & Nocentini, 2009, p. 230)”로 정의된 바 있다.

우리는 1인 미디어 괴롭힘 의도 중에서도 두 가지 유형의 괴롭힘, 즉 ‘언어폭력’과 ‘개인정보 유출’ 의도에 초점을 맞춘다. 첫 번째 유형인 ‘언어폭력’ 괴롭힘이 중요한 이유는,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본격적 연구가 ‘언어폭력’ 연구에 기원을 뒀기 때문이다(유재웅·조운경, 2016). 사이버 괴롭힘 연구에서 흔히 다루어진 괴롭힘이자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대표적 사이버 비행의 유형이 언어폭력이기도 하다(박현수·정혜원, 2018). 언어폭력은 공격적 언어를 사용해 피해자를 괴롭히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유재웅·조운경, 2016), 인터넷 공간에서의 적대감 표출과 욕설(박현수·정혜원, 2018), 허위사실 또는 유언비어 유포(이정기·우형진, 2010) 등이 그에 해당된다.

또 다른 주요 괴롭힘 유형은 ‘개인정보 유출’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처럼 정보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 SNS는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대상이 다수의 타 이용자이고, 개인식별 정보·라이프로그 정보·관계 정보 등을 제공한다라는 점에서 개인정보 노출 및 유출의 위험성이 크다(오주현·강정한, 2016). 2014년 여성 가족 리포트에 따르

---

1) 국내 실정법에서는 사이버 ‘불링(bullying)’을 ‘사이버 따돌림’으로 명명하고 있으나, 이는 학교 폭력의 하나로 규정되어 학교 내외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지속적·반복적 공격을 가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이에 국내 선행연구자들(예, 유재웅·조운경, 2016; 한희정·정혜진, 2014)은 이 사이버 ‘따돌림’과 ‘괴롭힘’을 구분하며 ‘사이버 괴롭힘’이라는 보다 포괄적 의미의 용어를 사용했고, 이 연구에서도 1인 미디어 괴롭힘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면, 서울시 청소년의 SNS 사이버 괴롭힘 피해 유형 1위는 ‘동의 없는 정보 노출’이었다(이승미, 2014). 1인 미디어인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서도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이 벌어지고 있다. 비교적 유명세를 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신상털기’를 비롯하여, 일반인의 ID·휴대전화번호·얼굴을 유출하는 행위 등이 그 예다(오기쁨·정윤식, 2017; 한소희, 2020).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개인정보 유출 가해 주체로 기업(예, 김수정·성민정, 2011)이 아닌 일반 이용자를 탐구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유재웅과 조윤경(2016), 오주현과 강정환(2016) 등이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경험적 연구를 했으나, 해당 연구들 역시 1인 미디어에 관한 것은 아니었다. 개인정보 유출 요인은 매체에 따라 다를 수 있다(오주현·강정환, 2016). 따라서 우리는 1인 미디어 괴롭힘 행위의도를 언어폭력 의도, 개인정보 유출 의도로 양분한 가운데 설명요인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 (2) 1인 미디어 괴롭힘에서의 여대생

1인 미디어 괴롭힘 의도의 설명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여대생 집단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했다. 첫 번째 이유는 괴롭힘이 성별을 반영한 현상이자 관계의 문제이므로(Pepler et al., 2007), 괴롭힘의 요인은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연유한다. 사이버 괴롭힘 가해율에서 성별 차이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발견되지 않은 적도 있으나(Slonje & Smith, 2008), 가해율 상 남녀 차이에 대해 메타 분석한 국외 연구(Sun et al., 2016)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초중고생(오인수, 2014)·중학생(Wang, Wang, & Lei, 2019; Kowalski & Limber, 2007)·대학생(Martinez-Pecino & Duran, 2019) 연령층에서의 남녀 간 차이를 검증한 경험적 연구 성과들도 꾸준히 쌓여왔다(Chan & Wong, 2019). 아울러 가해만이 아니라, 사이버 괴롭힘의 피해 경험에 있어서도 남녀가 구분된다는 연구결과들(예, Gao et al., 2016)은 사이버 괴롭힘 연구에서 괴롭힘 주체의 성별을 구별하여 볼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그 밖에도, 사이버 괴롭힘 가해는 나르시시즘과 정적 관계라는 점(Goodboy & Martin, 2015), 대학생들이 자기애가 비교적 강하지만(Konrath, O'Brien, & Hsing, 2011), 자기애에서도 성별 차이가 난다는 점(Grijalva et al., 2015) 등을 고려했을 때, 탐색적 연구로서 특정 성별 집단에 우선 초점을 맞춰보는 것은 적절한 접근

이 될 수 있다.

둘째, 사이버 괴롭힘은 매체의 특성상 물리적인 공격 형태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1인 미디어 공간에서는 특유의 사회 관계적 상호작용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과 관련 있다. 1인 미디어 괴롭힘은 광의의 방송 환경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으로서, 특유의 상호작용성(interactivity: “둘 또는 그 이상의 관계 간 행동 또는 호혜적 행동과정이 이루어지고, 인지적 심리과정이 수반되며, 커뮤니케이션 당사자들이 상호 간 영향을 주고받는 것”, 김혜영·안보섭, 2018, 87쪽)이 특히 중요한 대화형 환경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기타 사이버 괴롭힘과 차별적이고, 이러한 괴롭힘의 형태는 남성보다는 여성의 공격성과 개념적으로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진화심리학적 관점에서 공격과 폭력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생존 및 재 생산적 이득을 더 제공하므로(Bjorklund & Ellis, 2014), 여성은 타인을 공격할 가능성이 낮고 타인과 우호적 대인관계를 촉진하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왔다(Buss, 2005). 그러나 물리적 크기 및 힘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사이버 공간의 맥락은 여성에게 더 중요하다는 논의들(예, Crick & Grotpeter, 1995; Underwood & Rosen, 2011)은 사이버 괴롭힘에서의 남녀 특성을 오프라인 공간의 괴롭힘과 구분 지어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국내연구에서도 언어적 공격성은 사이버 괴롭힘과 높은 연관성을 보이고,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언어적 공격성과 사이버 괴롭힘 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예, 오인수, 2014). 국내의 선행연구자들은 1인 미디어 방송 환경에서는 쌍방향적인 커뮤니케이션 기제를 통해 시청자들의 요구가 즉각 반영될 가능성이 큰 관계 형성이 유리하다고 역설한다(권은정, 2019; 조재희·차유리, 2020; 최윤정, 2020; 한국소비자원, 2017).

셋째, 피해자 주체가 지각하는 괴롭힘의 심각성이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사이버 괴롭힘이 정신건강에 더 유해하다고 여기는 편이다(Campbell et al., 2013). 서울의 남자 청소년에 비해 여자 청소년이 SNS 상의 관계와 관련하여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기 쉽다는 보고도 있으므로(이승미, 2014), 탐색적 성격을 띤 이 연구에서는 여성 이용자 집단에 초점을 맞춰볼 수 있다.

아울러 우리는, 현대 Z세대(199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중반 사이에 태어난 세대)에 해당하는 연령층이자 1인 미디어를 활발하게 이용하는 여대생을 연구대상으로 한정한다. Z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모바일 기기나 PC를 이용하는 시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는데(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9), 현대 대학생들의 대부분이 이 Z세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20대(99.3%) 거의 전부가 온라인 동영상 시청을 즐기지만, 모바일 중심의 온라인 동영상 시청행태는 30대 이하 연령의 여성 집단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나스미디어, 2020)는 점에서 여대생 집단 대상 연구에 천착해볼 만하다.

## 2) 계획된 행동 이론 관점에서의 사이버 괴롭힘 의도 설명요인

사이버 괴롭힘 가해자의 의도를 설명하는 이론들이 여럿 제안된 바 있는데, 커뮤니케이션학 이론들 중에서는 계획된 행동 이론(TPB)이 대표적이다. 구체적으로, TPB는 인간 행동을 예측하는 데 쓰이는 사회인지 이론의 대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의지에 의한 행동을 결정하는 근접요인이 ‘행위 의도’라는 동기 수준의 변인이라고 보고 이를 모형의 종속 변인으로 삼는다. 개인들이 자신들에게 가용한 정보를 사려 깊게 고려한 가운데 행동을 결정한다는 가정에 토대를 둔다.

TPB 모형의 유용성은 다양한 사회과학적 주제에 걸쳐 검증되어왔는데, 반사회적 행동인 사이버 괴롭힘 연구에서도 그렇다(예, 유재웅·조운경, 2016; 이고은·정세훈, 2014; 이정기·우형진, 2010). 해당 의도 모형에 포함되는 주요 설명 변인들로는 다음과 같이 ‘태도’, ‘주관적 규범’, ‘행동 통제감’이 있다.

### (1) 태도

태도(attitude)는 특정 행동에 대한 감정적 차원의 총 평가로, 대상 개인들의 신념과 그 신념에 대한 평가를 뜻한다(O’Keefe, 2002). TPB 모형에서 ‘주관적 규범’과 더불어 가장 필수적인 변인으로 간주되어 왔다. 사이버 괴롭힘에 관한 국외 TPB 모형 연구에서도 가장 유력한 설명요인은 ‘태도’였다(Heirman & Walrave, 2012; Pabian & Vandebosch, 2014). 국내 연구자들(예, 이고은·정세훈, 2014) 역시 사이버 폭력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행동 통제감’과 더불어 비교적 유력한 결정요인임을 밝힌 바 있다.

단 태도가 국내 사이버 괴롭힘 연구에서 늘 가장 설명력이 높은 변인으로 검증되어 온 것은 아니다. 유재웅과 조운경(2016)은 청소년·대학생 및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TPB 근거 사이버 괴롭힘 행위 의도 예측요인 연구를 했는데, 상대적으로 가장 강력한 효과를 보인 변인은 ‘행동 통제감’인 것으로 제시됐다. 1인 미디어 괴롭힘의 경우에서도 태도가 여전히 유력한 변인으로 나타나는지 검증할 차례이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괴롭힘의 주체 입장을 고려하여 주요동기를 구분한 선행연구 내용을 토대로 삼아서, 1인 미디어 괴롭힘 태도의 영향력 역시 동기별, 즉 ‘재미’와 ‘응징’으로 구분한 가운데 탐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우선 ‘재미’란 개인이 즐겁다는 이유로 타인을 괴롭게 만들거나 성가시게 구는 것, ‘응징’은 타인의 행동을 고치거나 통제하기 위한 동료의 압력을 일컫는다(Rafferty & Ven, 2014). 기타 연구자들도 용어가 다를 뿐이지 비슷한 유형을 제시한다. 예컨대 ‘분노형’ 괴롭힘은 “보복과 응징 목적(전신현·이성식, 2010, 164쪽)”이라는 점에서 ‘응징’과 의미 면에서 상통한다. 국내 연구자들도 가해의 주된 이유를 크게 ‘재미’와 ‘응징’으로 나눈 바 있는데, 유재웅과 조윤경(2016)은 그로부터 한발 더 나아가 각 동기별 태도가 괴롭힘 의도에 대해 다른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도 검증했다. 해당 연구에서 응징용 괴롭힘 태도에 비해 재미용 괴롭힘 태도의 영향력이 높게 나타났지만, 선행연구에서의 대상 인구통계학적 집단은 물론이고 매체가 본 연구의 것과 동일하지 않다. 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문제를 설정 하되, 태도의 정적 영향력에 대한 가설을 아래와 같이 도출했다.

연구문제 1. TPB 요인(태도, 주관적 규범, 행동 통제감)은 1인 미디어 이용자들의 괴롭힘(언어폭력, 개인정보 유출)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설 1-1. TPB 요인인 태도는 1인 미디어 이용자들의 괴롭힘(언어폭력, 개인정보 유출) 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 주관적 규범

개인들은 타인들에게 긍정적 평가를 받게 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Sirgy & Su, 2000). TPB에서도 준거집단(reference group)의 규범적 기대를 행위자가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특정 행위의 수행 정도는 달라진다고 가정한다(Ajzen, 1991). 해당 요인인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은 TPB의 주요 요인들 중 하나로, 특정 행위에 관한 일종의 사회적 압력을 뜻한다.

주관적 규범이 사이버 괴롭힘을 유의미하게 설명한다는 실증적 증거들은 국내외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축적되어왔다(예, 유재웅·조윤경, 2016; Pabian & Vandebosch, 2014). 최근 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사이버 괴롭힘 의도에 대해 주관적 규범이 태도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Auemaneekul et al., 2019).

상술된 논의들은 국내 1인 미디어 괴롭힘 의도에서도 주관적 규범의 영향력이 유의한지를 알아볼 필요성을 불러일으키는데, 한층 더 나아가 우리는 해당 주관적 규범의 영향력을 형태별로 구분하여 탐색하려 한다. 근래 국외 연구자들(예, Sasson & Mesch, 2017)은 사이버 괴롭힘에서 부모의 중재, 또래 규범이 중요할 수 있음을 밝혔기 때문이다. TPB를 원용한 국내 사이버 언어폭력에 대한 연구(이정기·우형진, 2010)에서는 동료 집단 규범의 영향력이 검증되었다. TPB 모형 연구 사례는 아니지만,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태도 및 행위 의도를 종속 변인으로 한 국내 연구(조윤경·유재웅, 2018)에서도 ‘또래’ 집단과 ‘부모’ 집단으로 구분된 주관적 규범의 영향력이 유의한 수준이었다. 더욱이 SIDE(social identity model of deindividuation effect: 익명성 효과의 사회정체감 모형)에 따르면, 익명성의 조건에서 자기에 대한인지(self-awareness)가 약화되기 쉬우므로, 집단규범에 민감해진다(Reicher, Spears, & Postmes, 1995).

이상의 논의들을 통해, 1인 미디어를 함께 이용하는 시청자 집단도 준거집단으로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알아보며 주관적 규범 간의 상대적 영향력 또한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가설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2. TPB 요인인 주관적 규범(1인 미디어 시청자, 부모, 학교 친구)은 1인 미디어 이용자들의 괴롭힘(언어폭력, 개인정보 유출) 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 행동 통제감

행동 통제감(perceived behavior control)은 개인들이 어떤 행동을 잘 수행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 내린 주관적 평가를 뜻한다(Ajzen, 1991). 행동 통제감이 중요한 이유는, 실제 매체 이용자들의 괴롭힘에 관한 통제감, 즉 괴롭힘의 용이성이나 어려움을 인지하는 정도가 개인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TPB는 개인이 어떤 행동에 통제력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한 경우에만 유용한 TRA의 한계를 보완한다. 즉 TPB에서는 TRA에 행동 통제감을 추가하여 행동 의도에 대한 모형 설명력을 높인다.

하지만 국외 연구에서 행동 통제감과 사이버 괴롭힘 의도와는 상관은 미미한 수준이었고, 회귀분석 결과에서의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게 제시되었다(Auemaneekul et al., 2019). 단 국내 사이버 괴롭힘 의도에 관한 선행연구들(유재웅·조윤경, 2016; 이

고은·정세훈, 2014)에서 행동 통제감의 영향력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들 선행연구에 따르면, 의도에 대한 행동 통제감의 설명력은 어느 집단에서든 가장 높거나(유재웅·조윤경, 2016), 태도와 더불어 비교적 유력하다(이고은·정세훈, 2014). 국내 1인 미디어 괴롭힘 의도의 경우에도 행동 통제감의 영향력이 유의한지를 알아볼 필요성을 야기한다. 이에 전술된 내용을 바탕으로, 1인 미디어 괴롭힘 의도에 대해 TPB 요인인 행동 통제감이 정적 영향력을 지닐 것이라는 가설을 아래와 같이 도출했다.

연구가설 1-3. TPB 요인인 행동 통제감은 1인 미디어 이용자들의 괴롭힘(언어폭력, 개인정보 유출) 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 상황적 상호작용 플랫폼인 1인 미디어의 이용자 정체성 관점에서 도덕심리 및 행동 특성

사이버 괴롭힘 행동을 예측하는 데 근래 원용된 이론들로는 TPB 외로, 일반 공격 모형(The General Aggression Model)·합리적 행위 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일반 긴장 이론(General Strain Theory) 등이 있다(Barlett, 2017). 그러나 발렛(Barlett, 2016)도 지적했듯이, 이 이론들은 온라인 세계에 특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형의 설명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에 부딪힌다.

더욱이 1인 미디어 괴롭힘은 일반 사이버 괴롭힘과 유사하면서도 차별적인 특성을 지니므로, 매체 이용자 개인들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할 수 있다. 물론 선행 연구자들(예, 김혜영·안보섭, 2018; 유재웅·조윤경, 2016)이 정리했듯이, 1인 미디어 괴롭힘도 다른 사이버 괴롭힘처럼 첫째, 익명성이 강하고, 둘째,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는 등 공간을 초월하여 가해가 이루어지기 쉽다. 셋째, 신상정보 유출처럼 괴롭힘의 방식이 진화하여 위협성이 심할 수도 있다.

그런데 1인 미디어는 준 방송 매체이기도 하므로, 인기 있는 크리에이터 또는 BJ의 개인방송에는 실시간으로 수천 명의 이용자가 접속하여 시청할 뿐만 아니라, 수용자 취향별로 콘텐츠 선택 및 반복 재생 등이 가능하다는 특성을 지닌다. 또 1인 미디어 방송 환경에서는 일종의 준 방송인인 1인 크리에이터가 역할 하며(권은정, 2019; 조재희·차유리, 2020), 시청자들의 개입을 적극 장려하고(최윤정, 2020), 이용자들 간 채

팅·선물하기 등 다양한 형태의 상호작용이 활발하다(한국소비자원, 2017). 이러한 1인 미디어 공간에서의 괴롭힘은 상호작용성이 특히 중요한 대화형 환경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기타 사이버 괴롭힘과 차별적이다.

한편 정체성 이론은 크게 '환경적' 상호작용 입장의 정체성 이론과 '인식적' 입장의 것으로 양분되는데(김경숙·남현우, 2014), 이 연구에서 궁극적으로 차용한 주요 입장은 후자에 해당되는 인식적 입장이다. 전자는 당초 정체성이 시간에 따라 환경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예, Asencio & Burke, 2011). 개인들의 힘이나 자원보다는 환경적 요인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반면 개인들의 인식이 부각되는 후자의 입장에서는 탈 비행이라는 긍정적 변화를 가능케 하는 주요 조건은, 개인들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에서 가능할 만한 자아(possible self)와 자신의 정체성을 결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예, Paternoster & Bushway, 2009). 즉 개인들이 점차적으로 선한 자아로 정체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가정하며, 문제성 자아를 우선 규명하고자 한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에서의 도덕적 정체성과 개인 주관에의 도덕적 정체성이 실질적으로 일치할 때 괴롭힘과 같은 문제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1인 미디어 괴롭힘과 주요하게 관련될 가능성을 지니는 도덕 심리적, 행동적 특성에 대해 고찰했다. 도덕 심리 및 행동적 특성은 도덕적 정체성과 불가분의 관계인데, 도덕적 정체성은 도덕적 판단과 행동 간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된 새로운 근원이자 사이버 공간에서의 개인들을 대상으로 연구되는 대상이기도 하다(손경원, 2014).

## (1) 정체성 관점에서의 도덕적 특성

### ① 관련 도덕 심리적 특성: 온라인 참된 자아, 도덕적 이탈

이 연구에서는 개인의 도덕적 정체성 관련 심리적 특성으로, '온라인 참된 자아', '도덕적 이탈'에 주목한다. 먼저 온라인 참된 자아(true self on the net)는 개인적 정체성에 관한 개념으로, 인터넷상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개인들이 자신의 '참된' 측면을 표현하는 정도를 의미한다(Bargh, Mckenna, & Firzsimons, 2002). "사회적 규범에 어긋나기 때문에 사회적 상황에서는 드러내지 않다가 환경에 따라 표현되는 자아(Rogers, 1951: 조윤경·유재웅, 2016, 113쪽 재인용)"의 정도를 뜻하는 '참된 자아' 개념에서 발전한 개념이다.

자아(self) 개념은 개인들의 상호작용 및 관계 형성을 논의하는 데 중요한 개념으로 여겨진다. “그곳에 내가 존재하는 1인 미디어”는 비교적 일관성 있고 안정적인 자아(self)가 드러나는 곳으로, 내밀한 사적 공간인 동시에 타인들에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열린 공간이다(박유진, 2007, 260쪽). 자아는 특정 사회적 상황과 연합된 가면들의 다면적 구성체이긴 해도(Sirgy, 1986). 크게 현실적(actual) 자아와 이상적(ideal) 자아로 구분된다. 전자가 스스로에 대해 생각하는 자기 모습이라면, 후자는 자신에게 추구하는 자기 모습을 의미한다. 양 자아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개인들은 이를 일치시키도록 동기화된다. 정체성을 표현하며 타인의 인정을 추구하는 것도 해당 동기 차원에서 발견되는 양태다(Sirgy et al., 1991).

사이버 괴롭힘의 원인을 주로 익명성에 찾는 선행연구들을 고려했을 때에도(Valkenburg, 2011), 온라인 참된 자아는 익명성과 상호작용성이 비교적 높은 1인 미디어 괴롭힘과 관련될 수 있다. 개인들은 익명적 인터넷 공간에서 자신의 오프라인에서는 표현하기 어려워 억압된, 그러나 진정한 자아를 비교적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Bargh et al., 2002). 실제 사이버 괴롭힘 의도에 대해 참된 자아가 지니는 영향력은 검증되기도 했다. 국내의 경우에는 조운경과 유재웅(2016)의 사이버 괴롭힘 의도 요인 연구가 대표적인데, 해당 연구에서 행위 의도에 대해 참된 자아의 영향력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그 영향력은 주관적 규범과 같은 다른 변인들 사이에서 가장 컸다.

한편 도덕적 이탈(moral disengagement)은 도덕적 정체성 및 개인들의 이기심과 관련된 특성으로, 사이버 일탈 및 비행 연구에서 중요하게 취급되는 심리적 변인들 중 하나다(예, Kowalski et al., 2014). 도덕적 이탈과 친 사회적 도움 간의 부적 관계가 검증되기도 했다(Paciello et al., 2013). 국내 연구자들에 의해서도 대학생 집단의 도덕적 이탈과 사이버 일탈 간의 관계가 발견된 바 있다(노승현·조아미, 2011).

하지만 1인 미디어 괴롭힘 의도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사이버 괴롭힘 의도에 대해 온라인 참된 자아와 도덕적 이탈이 동시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경험적으로 살펴본 국내연구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계획된 행동 이론 관점의 요인들과 이들 도덕 심리적 특성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한 연구 사례 역시 아직 찾아볼 수 없다.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탐색적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연구문제 2-1. 1인 미디어 이용자들의 도덕 심리적 특성(온라인 참된 자아, 도덕적 이탈)은 괴롭힘(언어폭력, 개인정보 유출)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② 관련 도덕 행동적 특성: 오프라인 괴롭힘 경험, 1인 미디어 친 사회적 도움 행동 경험 및 의도

괴롭힘에 관한 선행연구자들은 괴롭힘이라는 반사회적 행동이 가해 주체인 개인들의 자아 유지 기제와 관련된 심리적 동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일상의 폭력 관련 경험 등이 해당 동기와 불가분의 관계라는 추론에 경험적 단서를 제공한다. 전통적 학교 괴롭힘 가해와 사이버 괴롭힘 행동 간 관계는 정적 관계라는 국외 연구결과(예, Chan & Wong, 2019), 청소년 가해자의 폭력 경험이 사이버 괴롭힘을 비교적 강력하게 예측한다는 국내 메타분석 결과(김신아·방은혜·한윤선, 2017),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사회적 지지를 대학생들이 지각한 정도와 사이버 괴롭힘 가해 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들(Cho & Yoo, 2017)도 매체를 초월한 행동의 질적 양태에 자아 유지 기제의 동기가 반영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사회학습이론에 기반을 두고 학교폭력과 같은 요인들을 괴롭힘 요인으로 고려한 연구도 있다(이고은·정세훈, 2014).

상기의 논의에만 근거를 둔다면, 1인 미디어 괴롭힘 의도에 대해 ‘오프라인 괴롭힘 경험’이 유의미한 요인일 것이라고 가정해볼 수도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자들은 오프라인 폭력과 사이버 괴롭힘에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조윤경·유재웅, 2016). 여성 청소년의 경우에는, 오프라인 괴롭힘 가해가 아닌 ‘피해’ 경험이 사이버 괴롭힘 가해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는 증거들도 있다(Zsila et al., 2019). 그러한 가운데, 1인 미디어 괴롭힘 요인으로서 오프라인 공격경험의 영향력을 검증한 경험적 연구 사례는 아직 찾아볼 수 없다. ‘오프라인 괴롭힘 경험’이 1인 미디어 괴롭힘 의도의 주요 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 자체를 먼저 탐색해볼 차례이다.

한편 우리는 1인 미디어의 괴롭힘 의도와 부적 관계에 있는 도덕 행동적 특성으로, 친 사회적 행동 특성(일반 도움 경험 및 의도, 괴롭힘 제지 의도)에 주목한다. ‘친 사회적 행동’은 타인 또는 집단에게 혜택이나 도움을 제공하려는 자발적 행위(Eisenberg & Mussen, 1989)를 일컫는다. ‘도움’은 친 사회적 행동으로, 타인에게 어떤 이익을 제공하거나 타인의 안녕을 개선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전신현, 2015)를 뜻한다.

정서적 지지, 격려, 정보 제공 등의 자발적 도움 행위가 인터넷상의 일반 친 사회적

행동이다(Sproull, Conley, & Moon, 2005: 차유리 2018 재인용). 행위자의 비가시성 및 도움 행동의 용이성 등에 힘입어, 1인 미디어 이용자들 역시 유튜브나 다른 이용자들 대상 이러한 도움을 제공한 ‘경험’이 있거나 제공할 ‘의도’를 지닐 수 있다.

‘괴롭힘 제지 의도’는 특정된 도움 맥락에서의 의도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괴롭히는 것을 목격자로서 말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 의도다. 친 사회 행동에는 공감 능력이 크게 작용하고(장현미, 2014), 공감 능력은 사이버 괴롭힘 의도를 낮추기도 하는데, 사이버 괴롭힘 상황에서 목격자의 공감 능력이 높을수록 중재를 적극적으로 한다고 보고된다(유재웅·조운경, 2018; 홍솔지·최윤경, 2017). 괴롭힘 목격자들은 또 다른 가해자로서 괴롭힘에 동참하거나 괴롭힘을 방관할 수도 있다. 선행연구자들(예, 백인혜·유순화·심예지, 2020)은 이러한 행태에 친 사회적 ‘경험’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상기의 도덕행동적 특성이 1인 미디어 괴롭힘 의도를 감소시키는 주요 요인일 것이라는 가설을 도출하기는 어렵다. 1인 미디어 괴롭힘 의도에 대해 이러한 친 사회 행동 특성이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적 접근에서 검증한 연구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친 사회적 경험에 관한 백인혜와 동료들(2020)의 연구에서는 종속 변인을 ‘1인 미디어 괴롭힘 의도’가 아니라 ‘또래 괴롭힘 방어 행동’으로 설정했었고, 대학생이 아닌 중고등 학생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선행연구자들은 친 사회적 행동을 하는 개인 주체들에 기만자(manipulator) 역시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한 가운데, 친 사회적 행동과 괴롭힘 행동 간의 관계는 괴롭힘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복잡한 것이라고 본다. 예컨대 학교에서의 친 사회적 행동 수준이 높게 보고된 청소년들일수록 괴롭힘 가해 수준도 높다(Zsila et al, 2019). 유사한 맥락에서, 오프라인상 반사회적 괴롭힘 주체의 인터넷상 친 사회적 행동 경향에 대해 다룬 경험적 연구들도 있다(예, 차유리, 2018). 이에 우리는 1인 미디어 괴롭힘 의도에 대한 도덕 행동적 특성의 영향력을 탐색하는 연구문제부터 다음과 같이 설정했다.

연구문제 2-2. 1인 미디어 이용자들의 도덕 행동적 특성(오프라인 괴롭힘 경험, 1인 미디어 일반 도움 경험, 일반 도움의도, 괴롭힘 제지 의도)은 괴롭힘 의도(언어폭력, 개인정보 유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2) 양가적 기능의 '정당한 세상-자기 신념'과 반사회적 차원의

### '괴롭힘 태도'

정당한 세상 신념(personal belief-in a just-world)은 세상이 정당해서 그 세상의 구성원들이 자기 노력이나 행동에 정당한 보상 또는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뜻한다(Lipkus, Dalbert, & Siegler, 1996). 일반적으로, 정당한 세상 신념은 개인들의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 시키고(Dalbert, 2009), 괴롭힘과 같은 반사회적 행동과 부적 관계에 있다고 알려져 왔다(Bai et al, 2016; Donat et al., 2012).

이러한 측면에서 정당한 세상 신념 자체는 일면 적응적이고 교육적으로 장려될만한 것으로만 여겨지기 쉽지만, 오히려 우리는 이 신념이 문제적 측면에서의 도덕적 정체성과 결부되는 자기본위적 신념과 기능적으로 상통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 신념은 보상과 처벌의 제공 주체를 어떻게 설정했는지에 따라 세상의 구성원인 개인 자신과 관련된 신념인 '정당한 세상-자기' 신념·불특정 다수와 관련된 신념인 '정당한 세상-사회' 신념으로 양분될 수 있다.

우리는 전자에 해당되는 정당한 세상-자기 신념이 자기 본위적 신념의 일종으로서, 이 연구의 TPB 주요 요인인 '괴롭힘에 관한 재미용 태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반사회적 행동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맥락적으로 존재하는지 경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선, 괴롭힘에 관한 재미용 태도와 정당한 세상 신념은 동일 개념이 아니므로, 각 태도와 신념이 각각 강한 개인들이 존재할 수 있다. TPB 이론적 관점의 선행연구결과에 비추어봤을 때 재미용 괴롭힘의 '태도'가 괴롭힘 의도의 유력변인일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재미용 태도가 강하다고 해서 정당한 세상 신념 역시 강하고 괴롭힘 가해를 쉽게 저지르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 정당한 세상-자기 신념이 조절적 영향력을 지닐 가능성에 대해 문제의식을 일으킨 주요 지점은, 해당 신념의 주제영역과 분노 간의 관계성에서 연유한다. 정당한 세상 신념은 일반적으로 도덕적 사안으로서 정의(justice)나 공정성 문제에 민감한 개인들의 발달적 특성을 반영한다(Gregory et al, 2010). 분노(anger)가 발생하면 다양한 자극에 보다 공격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den Hamer & Konijin, 2016), 공격의 일종인 괴롭힘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해당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를 지지하는 구도에 놓일 수 있다.

분노는 도덕적 정체성에 의해 조절될 수 있고(Wang et al., 2017), 정당한 세상 신념

중 개인적 신념은 자신의 개별적인 특성을 토대로 한 개인적 정체성의 산물인데(김은하 외, 2017), 도덕적 정체성의 기능은 양가성을 띠기도 한다. 개인들에게는 자기가 비도덕적이라고 지시하는 부정적 피드백을 기피하고, 스스로를 도덕적이라고 여기고 싶어하는 면도 있기 때문이다(차유리, 2018). 그래서 정체성 이론은 지금까지 비행(delinquency) 또는 범죄(crime) 행동 연구에 흔히 원용되어 왔다. 상황적 분노 그 자체보다는 평범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비윤리적인 행동의 원인을 개인의 정체성 문제 차원에서 찾는다. 그 중 대표적인 심리적 과정이 자기본위적 정당화(self-serving justifications)다 (Shalvi et al., 2015).

상기의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는 정당한 세상-자기 신념이 그 반사회적 심리로 분류되는 재미용 태도와 조합되었을 때 자기본위적 정당화 측면의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괴롭힘 의도 가능성을 증폭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자기본위적 정당화 맥락에서 도덕적 이탈(moral disengagement) 등이 사이버 괴롭힘의 조절변인으로 흔히 검증되어 왔으나(Wang et al., 2017), 정당한 세상-자기신념의 조절 효과를 검증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아래와 같은 탐색적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연구문제 3. 정당한 세상 신념은 재미용 괴롭힘 태도가 1인 미디어 이용자들의 괴롭힘 (언어폭력, 개인정보 유출)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가?

### 3. 연구 방법

#### 1) 조사 대상 및 절차

인터넷 1인 미디어를 주 1회 이상 시청하는 만 19-24세 연령의 국내 여대생을 설문조사 대상으로 설정했다. 전문 조사업체 (주)마켓링크에 의뢰하여 목적적 할당 표집에 따라 2020년 7월 온라인 설문을 진행했고, 총 300부의 유효 데이터가 확보되었다. 평균 연령은 만 21.56세로 나타났다. 서울권 거주자의 비중은 39.7%( $n=119$ ), 경기·인천의 경우는 27%( $n=81$ ), 부산·울산·경남권은 9.7%( $n=29$ ), 대구·경북권 7.7%( $n=23$ ), 대전·충남·충북·세종권 6.7%( $n=20$ ), 광주·전남·전북권이 7.3%( $n=22$ ), 강원·제주권은

2%( $n=6$ )로 제시됐다.

응답자들은 주요문항에 응답하기에 전에, 1인 미디어인 인터넷 개인방송의 주평균 시청 빈도, 댓글/채팅 참여 빈도(주 0회: 1, 약 1-2회: 2, 약 3-4회: 3, 약 5-6회: 4, 약 7회 이상: 5로 코딩), 댓글창 반박/비판 경험(전혀 그렇지 않다: 1, 대체로 그렇지 않다: 2, 그저 그렇다: 3, 대체로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5로 코딩)을 알아보는 문항에 응답했다. 종속 변인과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제시되어 회귀분석 시 통제변인으로 삼았다.

## 2) 주요변인의 측정 및 분석방법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 각 응답치의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 크론바흐 알파 값(Cronbach's  $\alpha$ )을 확인하고, 필요시 요인분석을 실시한 뒤 산술평균화하여 변인을 구성했다. 가설 1 및 탐색적 연구문제들의 답을 구하기 위하여, 상호작용이 고려된 회귀분석을 주요하게 실시했다. 분석 도구로 IBM SPSS Statistics 25를 활용했다.

### (1) 종속 변인: 1인 미디어 괴롭힘 의도

응답자 개인들이 앞으로 6개월 안에 1인 미디어 방송의 댓글 또는 채팅 기능을 통해 괴롭힘(언어폭력, 개인정보 유출)을 행할 가능성의 정도다. 측정도구로 '사이버 불링의 행위 의도(조운경·유재웅, 2018)'를 차용했다. 해당 문항은 국외 선행연구(Pabian & Vadnebosch, 2014)를 참고하여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한 것인데,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3문항씩 괴롭힘 형태별 유형에 맞게 변용했다.

#### ① 언어폭력 의도(3문항)

앞으로 6개월 안에 1인 미디어 방송 댓글 또는 채팅 기능을 통해 타인에게 언어적 폭력을 가할 가능성의 정도다(앞으로 6개월 안에 나는 1인 미디어 방송 댓글창/채팅창에서 누군가에게 ~ “공격적인 말을 할 가능성이 있다”, “공격적으로 말할 것이다” 등,  $\alpha=.90$ ,  $M=1.72$ ,  $SD=.89$ ).

#### ② 개인정보 유출 의도(3문항)

앞으로 6개월 안에 1인 미디어 방송 댓글 또는 채팅 기능을 통해 타인의 개인정보

를 유출할 가능성의 정도다(앞으로 6개월 안에 나는 1인 미디어 방송 댓글창/채팅창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 “폭로할 가능성이 있다”, “폭로할 것이다” 등,  $a=.93$ ,  $M=1.43$ ,  $SD=.80$ ).

## (2) TPB 변인

### ① 1인 미디어 괴롭힘 태도

1인 미디어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유형별 괴롭힘에 대한 긍정적 태도의 강도다. 선행연구(유재웅·조윤경, 2016)의 사이버 괴롭힘 주요 동기 및 형태에 관한 내용을 참고하여 주요 유형부터 설정했다. 또한 태도 측정을 위해, 파비안과 반데보쉬(Pabian & Vandebosch, 2014)의 의미분별 척도를 본 연구의 주제에 맞게 변용하여 3문항(부당한-정당한, 나쁜-좋은, 불쾌한-통쾌한)으로 구성했다. 한편 유재웅과 조윤경(2016)의 연구에서처럼, 조사 참여자들이 각 태도 측정 문항에 응답하기에 앞서 화면 상단에 진술문(“1인 방송 채팅창/댓글창에서 공격적인 언어를 사용하거나 개인정보를 폭로하는 것은 상대(예, 특정 크리에이터/스트리머/인플루언서, 또는 시청자/구독자/네티즌)의 행동을 고치거나 처벌하기 위해 행해질 수도 있고, 단순히 재미로 행해질 수도 있습니다”)를 제시하여, 바람직성 편향 문제 발생가능성을 방지했다.

가. 응징용 언어폭력 태도(3문항): 응징을 위해 1인 미디어 방송 채팅창/댓글창에서 공격적 언어를 사용하는 행동에 대한 긍정적 느낌의 정도다( $a=.96$ ,  $M=2.00$ ,  $SD=1.02$ ).

나. 응징용 개인정보 유출 태도(3문항): 응징을 위해 1인 미디어 방송 채팅창/댓글창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동에 대한 긍정적 느낌의 정도다( $a=.95$ ,  $M=1.95$ ,  $SD=1.07$ ).

다. 재미용 언어폭력 태도(3문항): 단순 재미를 위해 1인 미디어 방송 채팅창/댓글창에서 공격적 언어를 사용하는 행동에 대한 긍정적 느낌의 정도다( $a=.95$ ,  $M=1.61$ ,  $SD=.94$ ).

라. 재미용 개인정보 유출 태도(3문항): 단순 재미를 위해 1인 미디어 방송 채팅창/댓글창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동에 대한 긍정적 느낌의 정도다( $a=.96$ ,  $M=1.51$ ,  $SD=.87$ ).

## ② 행동 통제감(7문항)

유재웅과 조윤경(2016)의 연구 중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인지된 행동 통제감’ 문항을 차용했다. 해당 문항은 에어만과 윌레이브(Heirman & Wrave, 2012)의 연구를 참고하여 5문항으로 구성된 것이었는데, 본 연구의 주제에 맞게 7문항으로 변용했다(인터넷 1인 미디어 방송 댓글창/채팅창에서는~ “공격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오프라인에 비해 쉽다”, “개인정보를 폭로하는 것이 오프라인에 비해 쉽다” 등,  $\alpha=.82$ ,  $M=2.78$ ,  $SD=.83$ ).

## ③ 주관적 규범

1인 미디어 공간에서 타인을 괴롭히는 행위에 관하여 응답자들에게 비교적 중요한 사람들이 가질 태도에 대해 응답자가 예상하는 정도다. 파비안과 밴더보쉬(Pabian & Bandebosch, 2014)에 근거하여 구성된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주관적 규범’ 문항(유재웅·조윤경, 2016)을 차용하되, 이 연구의 주제에 따라 ‘부모’와 ‘학교친구’ 집단을 구분하고 ‘1인 미디어 방송 시청자’ 집단에 관한 문항도 아래와 같이 추가했다.

### 가. 1인 미디어 시청자(8문항)

응답자가 1인 미디어에서 남을 괴롭히는 행위에 관하여 해당 1인 미디어를 함께 이용하는 집단이 가질 태도에 대해 응답자가 예상하는 정도다(내가 활동하는 인터넷 1인 미디어 방송의 시청자들/네티즌들은 내가 응징/재미를 위해 1인 미디어 방송 댓글창/채팅창에서 언어공격/개인정보를 폭로하는 것을~ “개의치 않아 할 것이다” 등,  $\alpha=.93$ ,  $M=2.01$ ,  $SD=.85$ ).

### 나. 부모(8문항)

응답자가 1인 미디어에서 남을 괴롭히는 행위에 관하여 자신의 부모가 가질 태도에 대해 예상하는 정도다(내 부모님은 내가 응징/재미를 위해 1인 미디어 방송 댓글창/채팅창에서 언어공격/개인정보를 폭로하는 것을~ “개의치 않아 할 것이다” 등,  $\alpha=.95$ ,  $M=1.80$ ,  $SD=.88$ ).

다. 학교 친구(8문항)

응답자가 1인 미디어에서 남을 괴롭히는 행위에 관하여 교내 친구들이 가질 태도에 대해 응답자가 예상하는 정도다(내 학교 친구들은 내가 응징/재미를 위해 1인 미디어 방송 댓글창/채팅창에서 언어공격/개인정보를 폭로하는 것을~ “개 의치 않아 할 것이다” 등,  $\alpha=.94$ ,  $M=2.00$ ,  $SD=.91$ ).

(3) 정체성 이론 관점 변인

① 도덕 심리적 특성

가. 온라인 참된 자아(5문항)

‘온라인 참된 자아’에 관한 기존 문항들(조윤경·유재웅, 2018; Amichai-Hamburger, Wainapel, & Fox, 2002; McKenna et al., 2002)을 이 연구의 주제에 맞게 조합, 활용하여 총 5문항으로 구성했다(“현실(오프라인)의 친구나 가까운 사람들에 비해 내 자신을 더 많이 드러낸다” 등,  $\alpha=.86$ ,  $M=2.25$ ,  $SD=.37$ )

나. 도덕적 이탈(7문항)

자신의 공격적 행동이 사회적으로 수용되도록 정당화하는 인지적 왜곡 정도다. 도덕적 이탈(Bandura et al., 1996) 척도를 차용하여 구성했다(“나쁜 조건에서 살고 있다면, 공격적인 행동을 했다고 비난받아서 안 된다” 등,  $\alpha=.85$ ,  $M=2.11$ ,  $SD=.76$ ).

다. 정당한 세상-자기 신념(4문항)

응답자 자신 및 타인과 관계된 분배 및 절차 정당성에 대한 개인적 믿음 정도다. ‘한국어판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척도(김은하·김도연·박하솔·김수용·김지수, 2017)’ 중 ‘개인적 자기정체성(분배정당성-자기: Distributive Justice(DJ)-Self, 절차정당성-자기: Procedural Justice(PJ)-Self)’에 관한 4문항을 구성했다(“나는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과 처벌을 받으며 살아간다고 생각한다”, “나는 보통 남들을 정당한 방식으로 대한다” 등,  $\alpha=.84$ ,  $M=2.93$ ,  $SD=.65$ ).

## ② 도덕 행동적 특성

### 가. 오프라인(반사회적) 괴롭힘 경험(2문항)

지난 6개월간 오프라인에서 타인을 괴롭힌 경험 정도를 의미한다. ‘1인 미디어 괴롭힘 의도’ 문항에서 1인 미디어를 오프라인으로, 의도를 경험으로 각각 바꿔 측정했다(지난 6개월 간 나는 오프라인에서 ~“공격적인 말을 한 적이 있다” 등,  $\alpha=.61$ ,  $M=4.50$ ,  $SD=.85$ ).

### 나. 1인 미디어 친 사회적 행동 경험 및 의도

a. 1인 미디어 일반 도움 경험(3문항): 지난 1년간 1인 미디어 공간에서 남을 도운 경험 정도다. 반사회적 행동 대비 친 사회적 행동의 난도 가능성을 고려하여 경험의 기간을 6개월이 아닌 1년으로 넓게 설정하고, 장현미(2014)의 ‘인터넷 친 사회 행동’ 문항을 1인 미디어에 관한 본 연구주제에 맞게 변용하여 구성했다(지난 1년간 나는 1인 미디어 방송 댓글창/채팅창에서~“타인의 고민이나 힘든 처지에 대해 조언을 해준 적 있다” 등,  $\alpha=.77$ ,  $M=2.78$ ,  $SD=.92$ ).

b. 1인 미디어 일반 도움의도(3문항): 앞으로 6개월 안에 1인 미디어 방송 공간에서 타인을 도울 가능성 정도다. ‘1인 미디어 괴롭힘 의도’ 문항 중 ‘괴롭힘’을 ‘도움’으로 바꿔 측정했다(앞으로 6개월 안에 나는 인터넷 1인 방송 채팅창/댓글창에서 남을 돕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 등,  $\alpha=.85$ ,  $M=2.78$ ,  $SD=.92$ ).

c. 1인 미디어 괴롭힘(언어폭력, 개인정보 유출) 제지 의도(3문항): 앞으로 6개월 안에 1인 미디어 방송 공간에서 타인의 언어폭력/개인정보 유출을 제지할 가능성 정도다. 괴롭힘 의도 문항을 참고, 변용하여 측정했다(앞으로 6개월 안에 나는 인터넷 1인 방송 댓글창/채팅창에서 공격적 언어사용을 제지하는 발언/개인정보 폭로에 반발하는 발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 등, 언어폭력 제지 의도:  $\alpha=.91$ ,  $M=2.69$ ,  $SD=1.05$ , 개인정보 유출 제지 의도:  $\alpha=.93$ ,  $M=2.22$ ,  $SD=1.10$ ).

## 4. 연구 결과

### 1) 상관분석

아래의 <표 1>에서처럼, 종속 변인과 주요 독립 변인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상관치가 모두 0.9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가 포착되지는 않았으나, 가장 높은 상관치(주관적 규범: .74-.76)가 .07을 상회 하여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에 분산팽창인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통해 추가진단을 했다. ‘언어폭력 의도’, ‘개인정보 유출 의도’의 확장모형 회귀분석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VIF* 지수(1인 미디어 시청자 규범, 부모 규범, 친구 규범) 모두 10 미만인 것은 물론이고, 엄격한 기준인 4 미만(Kabacoff, 2015)을 충족시키므로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표 1.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1-1	1-2	2	3	4	5	6	7-1	7-2	8-1	8-2	9-1	9-2	10	11	12	13	
종속 미디어	1인	1-1. 언어폭력의도	1																	
		1-2. 개인정보유출 의도	-	1																
도덕 심리적		2. 온라인 참된 자아	.45 ***	.39 ***	1															
		3. 도덕적 이탈	.54 ***	.58 ***	.33 ***	1														
도덕 행동적		4. 오프라인 괴롭힘 경험	.59 ***	.55 ***	.45 ***	.45 ***	1													
1인 미디어		5. 일반도움경험	.18 **	.13 *	.27 ***	.15 *	.14 *	1												
		6. 일반도움의도	.20 ***	.13 *	.25 ***	.10 ( <i>n.s.</i> )	.10 ( <i>n.s.</i> )	.59 ***	1											
		7-1. 언어폭력 제지의도	.21 ***	.22 ***	.28 ***	.14 *	.17 **	.45 ***	.58 ***	1										
		7-2. 개인정보유출 제지의도	.33 ***	.30 ***	.34 ***	.18 **	.35 ***	.28 ***	.41 ***	-	1									



		1-1	1-2	2	3	4	5	6	7-1	7-2	8-1	8-2	9-1	9-2	10	11	12	13		
TPB	응징용 태도	8-1. 언어폭력	.50***	.55***	.32***	.38***	.33***	.06(n.s.)	.03(n.s.)	.10(n.s.)	.16**	1								
		8-2. 개인정보 유출	.46***	.52***	.21***	.39***	.34***	.07(n.s.)	.03(n.s.)	.15**	.10(n.s.)	-	1							
	재미용 태도	9-1. 언어폭력	.56***	.62***	.27***	.45***	.46***	.02(n.s.)	-.04(n.s.)	.05(n.s.)	.17**	.55***	.53***	1						
		9-2. 개인정보 유출	.49***	.68***	.25***	.47***	.42***	.07(n.s.)	.003(n.s.)	.09(n.s.)	.18**	.56***	.63***	-	1					
	주관적 규범	10. 1인 미디어 시청자	.53***	.50***	.36***	.47***	.46***	.07(n.s.)	.09(n.s.)	.20**	.25***	.46***	.44***	.46***	.44***	1				
		11. 부모	.51***	.58***	.38***	.50***	.53***	.10(n.s.)	.05(n.s.)	.12*	.20***	.51***	.51***	.51***	.54***	.76***	1			
		12. 학교 친구	.45***	.45***	.37***	.45***	.53***	.06(n.s.)	.01(n.s.)	.10(n.s.)	.23***	.38***	.38***	.41***	.41***	.74***	.76***	1		
	13. 행동 통제감	.31***	.22***	.39***	.26***	.28***	.22***	.29***	.30***	.28***	.14*	.12*	.11(n.s.)	.11*	.33***	.22***	.25***	1		

주. \* $p < .05$ , \*\* $p < .01$ , \*\*\* $p < .001$ , n.s.(non-significant):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을 나타냄

## 2) 회귀분석

### (1) 기초분석: TPB 모형

TPB 요인 영향력에 관한 연구가설 1을 본격적으로 검증하기에 앞서, 언어폭력 의도 및 개인정보 유출 의도별 TPB 모형의 유용성을 확인해보았다. 해당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① 언어폭력 의도에 대한 다중회귀 분석

TPB 요인들을 독립 변인으로 투입한 회귀분석 결과, 언어폭력 의도에 대한 회귀모형은 아래의 <표 2>에서처럼 유의미하게 나타났다(수정된  $R^2 = .51$ ,  $F(6, 293) = 50.70$ ,  $p < .001$ ). 가장 강력한 영향력은 재미용 괴롭힘 태도( $\beta = .36$ ,  $t = 6.91$ ,  $p < .001$ )였고, 그 다음이 학교 친구 규범( $\beta = .27$ ,  $t = 3.61$ ,  $p < .001$ )이었다. 응징용 괴롭힘 태도( $\beta = .19$ ,

$t=3.72$ ,  $p<.001$ )의 영향력도 유의미하게 제시됐다. 그러나 언어폭력 의도와 상관관계에 있던 1인 미디어 시청자, 부모 규범, 행동 통제감의 영향력은 유의수준 0.05 기준에서 유의성을 입증받지 못했다.

표 2. 언어폭력 의도에 대한 다중회귀 분석

TPB 요인		B	$\beta$	SE	t	p	95%CI		
							LL	UL	
태도	응징용	.15	.19	.04	3.72	<.001	.07	.23	
	재미용	.31	.36	.04	6.91	<.001	.22	.39	
주관적 규범	1인 미디어 시청자	.08	.09	.04	1.95	.05	-.001	.16	
	부모	.04	.05	.07	.66	.51	-.09	.17	
	학교 친구	.24	.27	.07	3.61	<.001	.11	.38	
행동 통제감		-.03	-.04	.06	-.53	.597	-.15	.09	
$F(6,293) = 50.70$ , $p<.001$									
$R^2 = .60$ , Adjusted $R^2 = .51$									

② 개인정보 유출 의도에 대한 다중회귀 분석

마찬가지로 TPB 요인들을 독립 변인으로 투입하되 종속 변인을 개인정보 유출 의도로 설정한 회귀분석 결과, 회귀모형은 아래의 <표 3>에서처럼 유의미하게 제시되었다(수정된  $R^2=.54$ ,  $F(6,293)=56.16$ ,  $p<.001$ ). 가장 강력한 영향력은 역시 재미용 괴롭힘 태도( $\beta=.43$ ,  $t=8.69$ ,  $p<.001$ )였고, 그 다음이 학교 친구 규범( $\beta=.22$ ,  $t=2.96$ ,  $p<.01$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의도와 상관관계에 있던 응징용 괴롭힘 태도, 1인 미디어 시청자·부모 규범, 행동 통제감의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3. 개인정보 유출 의도에 대한 다중회귀 분석

TPB 요인		B	$\beta$	SE	t	p	95%CI		
							LL	UL	
태도	응징용	.06	.08	.04	1.46	.15	-.02	.14	
	재미용	.43	.47	.05	8.69	<.001	.33	.53	
주관적 규범	1인 미디어 시청자	.08	.08	.04	1.93	.06	-.002	.16	
	부모	.09	.097	.06	1.42	.16	-.04	.22	
	학교 친구	.198	.22	.07	2.96	.003	.07	.33	
행동 통제감		-.03	-.04	.06	-.52	.60	-.15	.09	
$F(6,293) = 56.16$ , $p<.001$									
$R^2 = .53$ , Adjusted $R^2 = .54$									

## (2) 확장 모형: TPB 및 정체성 이론적 관점의 심리 및 행동요인 모형

확장모형에서 TPB에 관한 연구가설 1을 검증하고, 정체성 이론적 관점에서 탐색적으로 설정된 연구문제 2, 3의 답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했다. 해당 모형에서는 통제 변인(시청빈도, 참여빈도, 메시지 반박경험)을 주요변인들과 별개로 우선 투입했다. 본격적으로 주요변인들이 투입되기 시작하는 2단계에서는 TPB 요인들·3단계에서는 도덕 심리적 특성에 해당하는 두 변인(인터넷상 참된 자아, 도덕적 이탈)·4단계에서는 도덕 행동적 특성 네 가지(오프라인 괴롭힘 경험, 1인 미디어 일반 도움경험, 일반 도움의도, 언어폭력 제지의도)를 독립 변인으로 투입했다. 마지막 5단계에서는 재미용 공격 태도와 정당한 세상 신념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했다.

그 결과로 우선, TPB 요인(태도, 주관적 규범, 행동 통제감)은 1인 미디어 이용자의 괴롭힘(언어폭력, 개인정보 유출) 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 1이 부분적으로 지지 되었다. 구체적으로, 연구가설 1-1(태도의 정적 영향력), 가설 1-2(주관적 규범의 정적 영향력)는 부분적으로 기각되었다. 언어폭력 의도에 대해서는 재미용과 응징용 사이버 괴롭힘 태도의 영향력이 모두 유의미했지만, 개인정보 유출 의도에 대해서는 재미용 태도의 경우만이 그랬다. 한편 언어폭력 의도에 대해서는 1인 미디어 시청자 집단규범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개인정보 유출 의도에 대해서는 부모 규범의 영향력만 최종모형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1인 미디어 이용자들의 도덕 심리적 특성(온라인 참된 자아, 도덕적 이탈)은 1인 미디어 이용자들의 괴롭힘(언어폭력, 개인정보 유출)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묻는 <연구문제 2-1>의 경우, 도덕적 이탈의 영향력만이 유의미하게 제시됐다. 두 유형의 괴롭힘 의도 모두, 도덕적 이탈로부터는 정적 영향을 받았으나 온라인 참된 자아에 의해서는 설명되지 않은 것이다. 한편 1인 미디어 이용자들의 도덕 행동적 특성의 영향력을 탐색하고자 설정한 <연구문제 2-2>의 경우, 오프라인 괴롭힘 경험은 괴롭힘 행위(언어폭력, 개인정보 유출) 의도에 대해 모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친 사회적 도움 행동(1인 미디어 일반 도움 경험, 일반도움 의도, 괴롭힘 제지 의도) 중에서는 유일하게 일반도움 의도만이 언어폭력 의도를 유의미하게 설명했고, 나머지의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게 제시됐다.

<연구문제 3>에서는 재미용 괴롭힘 태도와 정당한 세상 신념의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보았다. 괴롭힘 의도의 유형과 상관없이, 해당 조절 효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관련하여, 괴롭힘 유형별 요인들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표 4>에서처럼 요약될 수 있다. 우선, 도덕적 이탈은 종속 변인과 상관없이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나타냈다. 오프라인 괴롭힘 경험, 1인 미디어 일반 도움의도, 응징용 태도, 재미용 태도, 1인 미디어 시청자 규범의 영향력의 유의미한 수준은 종속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마지막 모형에서 공통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변인은 일반 도움 경험, 괴롭힘 제지 의도, 학교친구에 대한 주관적 규범, 행동 통제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언어폭력 괴롭힘 및 개인정보 유출 괴롭힘 의도에 대한 주요 요인의 유사점과 차별점

주요 요인		유사점	차별점		
도덕적 정체성 이론	심리적	온라인 참된 자아	<i>n.s.</i>	-	
		<b>도덕적 이탈</b>	언어폭력 <sup>***</sup> , 개인정보유출 <sup>***</sup>	-	
	행동적	<b>오프라인 괴롭힘 경험</b>	-	언어폭력 <sup>***</sup> , 개인정보유출 <sup>**</sup>	
		1인 미디어	일반 도움경험	<i>n.s.</i>	-
			<b>일반 도움의도</b>	-	언어폭력*, 개인정보유출 <i>n.s.</i>
괴롭힘 제지의도	<i>n.s.</i>		-		
계획된 행동 이론	태도	<b>응징용</b>	-	언어폭력 <sup>**</sup> , 개인정보유출 <i>n.s.</i>	
		<b>재미용</b>	언어폭력 <sup>***</sup> , 개인정보유출 <sup>***</sup>	-	
	주관적 규범	<b>1인 미디어 시청자</b>	-	언어폭력*, 개인정보유출 <i>n.s.</i>	
		<b>부모</b>	-	언어폭력 <i>n.s.</i> , 개인정보유출*	
		학교 친구	<i>n.s.</i>	-	
	행동 통제감		<i>n.s.</i>	-	

주. \* $p < .05$ . \*\* $p < .01$ . \*\*\* $p < .001$ . *n.s.*(non-significant):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을 나타냄

이러한 회귀분석 결과의 세부사항을 종속 변인별 항목에 따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언어폭력 의도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언어폭력 의도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모형의 1단계에서는 <표 5>에서처럼, 통제 변인으로서 1인 미디어 시청빈도의 효과가 마지막 모형에서까지 미미하지만 유의미하게 제시되었다. 2단계에서 TPB 요인이 투입되자 모형의 설명력은 17%에서 49%로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응징용 태도( $\beta = .16, p < .01$ )와 재미용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태도

( $\beta=.30, p<.001$ ), 행동 통제감( $\beta=.13, p<.01$ )이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였다. 3단계에서 도덕 심리적 특성이 투입되며 모형 설명력은 49%에서 53%로 증가하였고 도덕적 이탈( $\beta=.22, p<.001$ )이 언어폭력 의도를 유의한 수준에서 설명했다. 4단계에서는, 도덕 행동적 특성 가운데에서 오프라인 괴롭힘 경험( $\beta=.23, p<.001$ )과 1인 미디어 일반도움 행위 의도( $\beta=.12, p<.05$ )의 영향력이 유의미한 수준이었고, 1인 미디어 시청자 집단의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변한 반면에 행동 통제감의 영향력은 더 이상 유의하지 않게 제시됐다. 마지막 단계에서 재미용 언어폭력 태도와 정당한 세상 신념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최종 모형에서 각 변인들이 지닌 영향력은 재미용 태도( $\beta=.23, p<.001$ )와 오프라인 괴롭힘 경험( $\beta=.23, p<.001$ )이 상대적으로 가장 강력했다. 이어서 도덕적 이탈( $\beta=.18, p<.001$ ), 응징용 태도( $\beta=.15, p<.01$ ), 1인 미디어 시청자 집단규범( $\beta=.14, p<.05$ ), 1인 미디어 일반도움 행위 의도( $\beta=.12, p<.05$ ) 순이었다.

표 5. 언어폭력 의도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beta$	$t(p)$	$\beta$	$t(p)$	$\beta$	$t(p)$	$\beta$	$t(p)$	$\beta$	$t(p)$	
단계 1 (통제)	1인 미디어	시청빈도	-.24	-4.21 ( $<.001$ )	-.14	-3.02 (.003)	-.12	-2.61 (.009)	-.11	-2.48 (.014)	-.11	-2.53 (.012)
		참여빈도	.21	3.66 ( $<.001$ )	.11	2.42 (.016)	.08	1.75 (.081)	.06	1.43 (.153)	.06	1.35 (.178)
		메시지 반박경험	.29	5.24 ( $<.001$ )	.14	3.09 (.002)	.10	2.16 (.032)	.06	1.27 (.204)	.06	1.29 (.198)
단계 2 (TPB)	태도	응징용			.16	2.90 (.004)	.13	2.44 (.015)	.15	2.90 (.004)	.15	2.95 (.003)
		재미용			.30	5.69 ( $<.001$ )	.26	4.90 ( $<.001$ )	.22	4.18 ( $<.001$ )	.23	4.29 ( $<.001$ )
	주관적 규범	1인 미디어 시청자			.14	1.89 (.059)	.13	1.81 (.071)	.15	2.15 (.032)	.14	2.13 (.035)
		부모			.02	0.28 (.779)	-.03	-0.42 (.67)	-.07	-1.01 (.316)	-.08	-1.07 (.286)
		학교 친구			.08	1.13 (.261)	.03	0.39 (.69)	-.02	-0.25 (.804)	-.02	-.23 (.821)
	행동 통제감			.13	2.91 (.004)	.07	1.63 (.11)	.04	0.80 (.423)	.04	.80 (.422)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beta$	$t(p)$	$\beta$	$t(p)$	$\beta$	$t(p)$	$\beta$	$t(p)$	$\beta$	$t(p)$
단계 3 (도덕 심리적)	온라인 참된 자아					.13	2.70 (.007)	.08	1.59 (.113)	.08	1.60 (.123)
	<b>도덕적 이탈</b>					.22	4.39 ( $\langle$ .001)	.19	3.76 ( $\langle$ .001)	.18	3.55 ( $\langle$ .001)
단계 4 (도덕 행동적)	<b>오프라인 괴롭힘 경험</b>							.23	4.48 ( $\langle$ .001)	.23	4.37 ( $\langle$ .001)
	1인 미디어	일반 도움경험						-.02	-0.41 (.682)	-.02	-.35 (.725)
		<b>일반 도움의도</b>							.12	2.23 (.026)	.12
	언어폭력 제지의도							-.004	-0.09 (.932)	-.002	-0.05 (.963)
단계 5 (상호 작용)	재미용 언어폭력 태도 * 정당한 세상 신념									.04	1.06 (.292)
Adjusted $R^2$		.17		.49		.53		.56		.56	
$\Delta R^2$		.18		.32		.04		.04		.00	
$F(df1, df2)$		21.33(3,296) $p\langle$ .001		32.36(9,290) $p\langle$ .001		31.36(11,288) $p\langle$ .001		26.66(15,284) $p\langle$ .001		25.07(16,283) $p\langle$ .001	

## ② 개인정보 유출 의도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표 6〉에 제시된 개인정보 유출 의도 모형에서는 언어폭력 의도 모형의 경우와 달리, 마지막 단계에서 모든 통제 변인들의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게 변화했다. 2단계에서 TPB 요인이 투입되자 모형의 설명력은 10%에서 53%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재미용 태도 ( $\beta=.47, p\langle$ .001)와 부모 규범( $\beta=.21, p\langle$ .01)이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였다. 3단계에 투입된 도덕 심리적 특성의 영향력은 모두 유의미했고(온라인 참된 자아:  $\beta=.12, p\langle$ .05, 도덕적 이탈:  $\beta=.25, p\langle$ .001), 4단계에 투입된 도덕 행동적 특성 변인으로는 오프라인 괴롭힘 경험( $\beta=.17, p\langle$ .01)만이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였다. 마지막 단계에서 재미용 개인정보 유출 태도와 정당한 세상 신념의 상호작용 효과는 역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로써, 최종모형에서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나타난 주요변인의 설명력은 재미용 태도( $\beta=.37, p\langle$ .001)가 가장 컸다. 이어서 도덕적 이탈( $\beta=.23, p\langle$ .001), 오프라인 괴롭힘 경험( $\beta=.17, p\langle$ .01), 부모 규범( $\beta=.14, p\langle$ .05) 순이었다.

표 6. 개인정보 유출 의도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beta$	$t(p)$	$\beta$	$t(p)$	$\beta$	$t(p)$	$\beta$	$t(p)$	$\beta$	$t(p)$	
단계 1 (통제)	1인 미디어	시청빈도	-.23	-3.83 ( $\langle .001$ )	-.05	-1.16 (.245)	-.03	-0.80 (.422)	-.02	-.60 (.552)	-.02	-0.52 (.603)
		참여빈도	.17	2.73 (.007)	.06	1.33 (.185)	.03	.63 (.532)	.01	.25 (.804)	.01	.30 (.767)
		메시지 반박경험	.20	3.49 (.001)	.09	1.98 (.049)	.04	.86 (.393)	.01	.18 (.858)	.01	.15 (.877)
단계 2 (TPB)	태도	응징용			.06	1.12 (.265)	.06	1.09 (.276)	.07	1.31 (.192)	.07	1.31 (.193)
		재미용			.47	8.61 ( $\langle .001$ )	.40	7.56 ( $\langle .001$ )	.37	7.09 ( $\langle .001$ )	.37	6.95 ( $\langle .001$ )
	주관적 규범	1인 미디어 시청자			.08	1.10 (.274)	.05	.81 (.420)	.06	.88 (.380)	.06	.97 (.335)
		부모			.21	2.85 (.005)	.16	2.21 (.028)	.14	1.98 (.048)	.14	1.99 (.048)
		학교 친구			-.02	-.33 (.745)	-.07	-1.16 (.248)	-.12	-1.83 (.069)	-.12	-1.82 (.070)
행동 통제감			.06	1.42 (.156)	.01	.14 (.892)	-.02	-.51 (.613)	-.02	-.44 (.659)		
단계 3 (도덕 심리적)	온라인 참된 자아					.12	2.59 (.010)	.08	1.63 (.104)	.08	1.54 (.125)	
	도덕적 이탈					.25	5.26 ( $\langle .001$ )	.23	4.87 ( $\langle .001$ )	.23	4.94 ( $\langle .001$ )	
단계 4 (도덕 행동적)	오프라인 괴롭힘 경험							.17	3.31 (.001)	.17	3.37 (.001)	
	1인 미디어	일반 도움경험						-.05	-.95 (.342)	-.05	-.92 (.360)	
		일반 도움의도						.06	1.22 (.225)	.06	1.35 (.179)	
개인정보 유출 제지 의도							.07	1.64 (.102)	.07	1.69 (.092)		
단계 5 (상호 작용)	재미용 개인정보 유출 태도 * 정당한 세상 신념								-.007	-.19 (.851)		
Adjusted $R^2$			.10		.53		.58		.60		.60	
$\Delta R^2$			.11		.44		.05		.03		.00	
$F(df1, df2)$			11.90(3,296) $p\langle .001$		38.90(9,290) $p\langle .001$		38.86(11,288) $p\langle .001$		31.32(15,284) $p\langle .001$		29.27(16,283) $p\langle .001$	

## 5.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1인 미디어, 즉 인터넷 개인방송을 이용하는 여대생들의 반사회적 폭력 행동 과정을 계획된 행동 이론에 입각하되 정체성 이론 관점에서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두었다. 1인 미디어 괴롭힘 행위 의도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1인 미디어 공간에서의 괴롭힘 행위의 주요 특성 및 계획된 행동 이론(TPB) 연구들에 관한 문헌 검토를 선행했다. 1인 미디어 이용자들의 괴롭힘 행동이 정체성 이론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을 포착하였고, 이에 정체성 이론 관점에서 TPB 확장 요인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기존 TPB 모형의 설명력이 1인 미디어 맥락에서도 유효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TPB 요인들의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문제 1>과 연구가설 1을 설정했다. 이어서 탐색적 성격의 <연구문제 2>에서는 확장된 모형 유용성의 단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체성 이론 관점 요인들의 영향력을 살피고자 했다. 끝으로 <연구문제 3>에서는 정체성 이론 관점에서의 정당한 세상 신념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괴롭힘 의도에 대한 주요 설명 변인과 정당한 세상 신념-자기 간의 상호작용 효과 여부를 탐색해보았다.

상기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국내 1인 미디어를 주 1회 이상 이용하는 여대생 대상 온라인 조사 데이터( $N=300$ )를 바탕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상관분석·요인분석·회귀분석 등을 거쳐 모형의 설명력 및 요인의 효과를 검증하고, 상호작용 효과에 관한 답도 도출했다. 주요 결과 및 학술적·교육/캠페인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연구문제 1>의 답을 구한 결과, TPB 변인에 해당되는 일부 태도 및 주관적 규범만이 1인 미디어 맥락에서의 괴롭힘(언어폭력, 개인정보 유출) 의도에 정적 영향력을 보임으로써 연구가설 1이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어느 모형에서든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은 행동 통제감에 관한 발견은, 행동 통제감을 유력변인으로 간주한 기존 연구들(예, 유재웅·조윤경, 2016; 이고은·정세훈, 2014)과 차별적인 결과다. 그러나 태도 및 주관적 규범에 관한 결과는 TPB를 원용하는 기존 연구들(예, 유재웅·조윤경, 2016; 이고은·정세훈, 2014)과 부합하는 면이 있다는 것을 보이며, 우리가 설정한 방향이 타당하게 설정되었음을 알려준다.



특히 이 연구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인 TPB 요인들 중에서는 태도, 그중에서도 재미용 괴롭힘에 대한 태도에 주목할 만한데, 재미용 괴롭힘 태도만이 두 유형의 괴롭힘 의도를 모두 설명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응징용 보다 재미용 태도가 높은 설명력을 보여 태도 동기에 따라 괴롭힘 의도에 대해 서로 다른 영향력이 검증된 선행연구(유재웅·조윤경, 2016) 결과와 수렴되며, 재미용 괴롭힘 태도가 언어폭력·개인정보 유출 괴롭힘 맥락을 떠나 간과될 수 없는 요인임을 시사한다. 아울러 상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1인 미디어 재미용 괴롭힘 ‘태도’를 구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효과를 검증하는 것도 향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처럼 재미용 괴롭힘 태도가 비교적 유력변인이라고 확인된 이 연구의 결과는, 주관적 규범이 태도에 비해 설명요인으로 유력하다고 밝힌 선행연구(예, Auemanekul et al., 2019)와도 상충하는 새로운 발견이다. 태도 외로, 1인 미디어 시청자 집단규범은 언어폭력 의도에 대해, 부모 규범은 개인정보 유출 의도에 미미하더라도 각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교 친구 규범의 영향력은 종속 변인과 상관없이 최종모형에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TPB를 원용하더라도, 가해자의 괴롭힘 유형·가해자의 동기, 및 온라인 매체 특성 등에 따라 동일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가정한 이 연구의 접근이 적절했음을 재확인시킨다.

탐색적 <연구문제 2-1>은 정체성 이론 관점에서의 도덕 심리적 특성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설정했다. 연구결과, 도덕 심리적 특성인 온라인 참된 자아는 두 유형의 괴롭힘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참된 자아를 현실 세계와 다른 자아의 모습으로 측정하였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주변의 기대나 시선 때문에 표현하지 못하고 숨겨왔던 자아가 항상 사회적 규범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남성이 평소 숨겨두었던 자신의 여성성을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드러낸다 하여 이것이 사이버 괴롭힘과 같은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용인 정도로 측정된 도덕적 이탈은 괴롭힘 의도와 정적인 관계를 보여 이탈 행위가 가능하다고 생각할수록 사이버 괴롭힘 의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대적으로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운 온라인 상에서 억제되었던 참된 자아가 표현될지라도 참된 자아가 반드시 일탈적이지는 않기에 괴롭힘 행위 의도와 연관성이 없지만, 일탈 행위에 대한 문제의식과 개념적으로 부정 관계인 도덕적 이탈은 사이버 괴롭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관련하여 흥미로운 결과들 중 하나는 도덕적 이탈이 괴롭힘 유형과 상관없이 상대적으로 유력한 설명요인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도덕적 이탈은 특히 개인정보 유출 의도 모형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보였는데, 이는 도덕적 이탈을 주요변인으로 설정한 관련 연구가 후속 실증연구 주제로 활발히 모색될만하다는 것을 알린다. 도덕적 이탈과 자기본위적 도덕성 차원의 기타 심리적 변인들 간 관계를 확인하는 연구도 진행해보길 기대한다.

탐색적 <연구문제 2-2>에서는, 정체성 이론 관점에서의 도덕 행동적 특성이 지니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친 사회적 행동 경험 및 의도의 영향력과 달리, 오프라인 상의 반사회적 괴롭힘 경험이 비교적 강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이는 청소년 가해자의 폭력 경험과 사이버 괴롭힘이 연관하다는 선행연구(예, 김신아·방은혜·한운선, 2017) 내용과 어울린다.

또한 괴롭힘 행위와 의미 측면에서 대립 관계에 있는 1인 미디어 일반도움 의도가 1인 미디어 언어폭력 행위 의도에 미약하게나마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됐다. 개인 괴롭힘 연구 영역에서 TPB에 대한 위상이 높지만, 1인 미디어 괴롭힘 문제는 시공간 단절적인 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문제로만 취급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환기시킨다. 정체성 이론 관점에서의 기본 가정이 적절함을 알려줌으로써, 친 사회적 행동과 반사회적 행동 간 관계를 알아보는 추후 연구에 발판을 제공한다. 아울러 반사회적 행동특성인 오프라인 공격경험이 적어도 국내 여대생 이용자의 1인 미디어 괴롭힘 연구에서 주목할만하다는 것을 알게 한다. 결국 이 연구 결과는 확장 모형의 유용성뿐만 아니라, 1인 미디어를 이용하는 국내 여대생들의 괴롭힘 행위 의도에 자아유지 기제 측면의 심리 및 행동 변인이 간과될 수 없음을 처음 밝혔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다.

마지막 <연구문제 3>의 답을 구하기 위해, 괴롭힘 행위 의도에 대한 재미용 괴롭힘 태도를 정당한 세상 신념이 조절하는지 탐색해보았다. 그 결과, 정당한 세상 신념의 조절 효과는 중속 변인과 상관없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정체성 관점에서의 선행연구(예, Wang et al., 2017)에서 자기본위적 심리의 영향력이 검증된 바와 구분된다. 미디어 재미용 괴롭힘 태도가 강한 개인들이 정당한 세상 신념까지 강한 경우에 괴롭힘 행위 의도가 증폭될 수 있다는 가정과 달리, 정당한 세상 신념이 유의미하게 작용하지 않은 이유는 재미용 괴롭힘에 대해서는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가 작용하지 않았

기 때문에 해석된다. 이후 연구에서는 분노 감정과 공격성 등을 고려하여 정당한 세상 신념의 조절 효과를 탐색해볼 것을 제안한다.

종합적으로, 이 연구에서 검증한 모형은 국내 여대생들이 1인 미디어를 이용하면서 괴롭힘 행위 의도를 형성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괴롭힘 행동에 대한 효능감 및 태도를 형성하고 관련 사회적 압력을 인식하는 과정은 대부분의 괴롭힘 행동 조건이라고 여겨져 왔는데, 이 연구는 1인 미디어 괴롭힘 맥락에서 특히 간과되기 쉬운 정체성 관련 변인들의 역할에 대한 통찰을 제공함으로써 사이버 괴롭힘 연구 지평 확대에 기여한다. 정체성 이론적 관점이 위험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설명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드러냄으로써, 도덕적 심리 및 행위의 중요성이 역설된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을 보인다. 결국 정체성 이론 관점에서 여대생들의 1인 미디어 괴롭힘 연구의 단초를 경험적으로 제공했다는 점에서 가치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여대생들이 1인 미디어를 이용하면서 어떻게 가해자가 될 수 있는지를 이해시키고 설명하며, 미디어 교육 및 공익캠페인 종사자들에게도 실무적 함의를 준다. 첫째, 1인 미디어를 이용하는 여대생이 괴롭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영역에서 해당 이용자들이 괴롭힘 태도를 어떻게 가지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알게 한다. 적어도 해당 인구통계학적 집단에서는 1인 미디어 공간에서의 재미용 괴롭힘 ‘태도’가 괴롭힘 행위의 강력한 지표로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이버 괴롭힘 예방 교육 및 캠페인 실무자들이 1인 미디어에서의 재미용 괴롭힘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시키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재미용 태도가 유의미한 변인이라는 이 연구의 결과는, 1인 미디어를 포함한 사이버 괴롭힘이 여전히 단순히 재미로 가해질 수 있고 많은 괴롭힘 가해자들이 사이버 괴롭힘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1인 미디어 괴롭힘 행위에 타인의 시선(주관적 규범)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만이 아니라 어떤 타인을 우선시 해야 할지를 알려준다. 즉 사이버 괴롭힘 예방을 위해서는, 괴롭힘에 대한 준거집단인 1인 미디어 구성원 집단·부모의 부정적 시선 및 평가를 학술적·실무적 관련 작업에서 관심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아울러 TPB 관점에서 사회집단의 규범을 매체 이용자들에게 인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당 전략만이 최선의 선택지는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 사회집단의 규범·처벌 가능성 인지 관련 전략 외로도, 애초 재미용 괴롭힘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지 않게 하고 도덕적 이탈 방지에 도움이 되며, 오프라인 공간에서부터 남을

괴롭히지 않게 하는 사전 교육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실무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제한점을 지닌다. 조사 방법에 따른 한계도 그에 속한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국내 거주지를 특정하지 않고, 성별에 따라 사이버 괴롭힘의 양상이 다르다는 관점에서 분석대상을 1인 미디어 이용자들 중에서도 여대생들만을 한정했다. 남녀 모두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성별에 따른 집단 비교를 하였으면 보다 풍부한 연구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대표성도 확보된 표본의 반복연구는 후속 연구 과제로 남겨둔다.

1인 미디어 콘텐츠 유형의 특성이 연구 설계 시 반영되지 않은 점도 아쉬운 점들 중 하나다. 1인 미디어 콘텐츠가 전통적 장르로 구분되기는 어렵다고 해도, 어떤 콘텐츠 유형의 1인 미디어 콘텐츠 환경인지에 이용자들이 느끼는 실재감·준 사회적 상호작용의 양태 등이 달라질 수 있다. 후속 연구자들은 일반 1인 미디어 환경에서의 괴롭힘을 국내에서 처음 경험적으로 다룬 이 연구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체적이고 특정한 장르의 1인 미디어 이용 상황 또는 1인 미디어 장르별 상대적 효과를 고려한 연구 등을 설계해보길 바란다.

끝으로, 우리는 TPB 모형 및 확장 모형의 설명력을 파악하기 위해 모형 적합도와 변인들의 직·간접 효과를 검증하지는 않고 다중 회귀분석만 실시했다. 해당 변인들이 종속 변인에 유의미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를 탐색하는 자체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한 만큼, 다른 연구자들은 해당 변인들 간의 관계를 다루는 다중 매개 모형·모형 간명성에 관한 함의를 이끌어내는 연구들까지 이어서 시도해볼 수 있으리라 전망한다.

## 참고문헌

- 권은정 (2019). 개인방송 규제에 관한 법체계적 고찰. *공법연구*, 47, 299~333.
- 김경숙·남현우 (2014). 탈비행 청소년의 비행정체성에 대한 낙인이론과 정체성이론의 변인 비교. *한국청소년연구*, 25(2), 209~236.
- 김수정·성민정 (2011). 온라인 위협에 대한 상황 인식과 사전 지식수준이 커뮤니케이션 행동에 미치는 영향: 개인정보 유출을 중심으로. *한국광고홍보학보*, 13(4), 528~567.
- 김신아·방은혜·한운선 (2017). 청소년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예측요인 탐색을 위한 국내연구 메타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5), 18~33.
- 김아미 (2019, 3월 11일). 사이버 불링, 글과 영상으로 '저격'하는 아이들. *한겨레*, URL: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885505.html>
- 김유진 (2020, 7월 14일). “썸네일만 떠도 XXXX” 故 BJ 박소은이 받았던 악플 수준. *국민일보*, URL: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799270>
- 김은하·김도연·박한솔·김수용·김지수 (2017). 한국어판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척도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3), 689~710.
- 김해원·강혜원·백지연 (2018). 크리에이터에게 이용자와 '상호작용'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19(2), 49~90.
- 김혜영·안보섭 (2018). 온라인 1인 미디어 개인방송 BJ 에 대한 매력도와 신뢰성이 미디어 채널에 대한 시청 몰입, 상호 작용성, 인지된 즐거움과 이용자의 반응에 미치는 효과 연구. *광고연구*, (118), 78~126.
- 나스미디어 (2019). *2019 인터넷 이용자 조사 NPR*. URL: <https://www.nasmedia.co.kr/NPR/2019%EB%85%84/>
- 나스미디어 (2020). *2020 인터넷 이용자 조사 NPR*. URL: <https://www.nasmedia.co.kr/NPR/2020/>
- 노승현·조아미 (2011). 대학생의 도덕적 이탈 및 자아정체감이 사이버 이탈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문화포럼*, 28, 34~55.
- 박유진 (2007). 1인 미디어 이용자들의 자기개념과 꾸미기 아이템 이용동기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8(2), 259~281.
- 박현수·정혜원 (2018). 청소년 사이버 언어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청소년연구*, 29(2), 217~240.
- 방극렬 (2019, 10월 16일). '얼굴 없는 살인자' 악플, 스타뿐 아니라 일반인도 노린다.

- 국민일보, URL: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02974&code=11131100&cp=nv>
- 방송통신위원회 (2019).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URL: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73560&call\\_from=rsslink](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73560&call_from=rsslink)
- 백인혜·유순화·심예지 (2020).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청소년의 도덕적 정체성과 또래괴롭힘 방어행동. *아시아교육연구*, 21(2), 409~431.
- 손경원 (2014). 교과교육학. *윤리교육연구*, 34, 113~147.
- 송윤지 (2019, 8월 28일). [내 아이의 유튜브]“저격합니다”, “해명하세요”…10대는 충성 없는 전쟁중. *서울경제*, URL: <https://www.sedaily.com/NewsView/1VN583QT8X>
- 오기쁨·정운식 (2017, 8월 10일). 인기 남성 유튜버들, '남혐 발언' 여성 유튜버 살해 위협 논란. *SBS 뉴스*, URL: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340266&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340266&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 오인수 (2014). 성별에 따른 유형별 공격성과 전통적 괴롭힘 및 사이버 괴롭힘 가해의 관계. *상담학연구*, 15(5), 1871~1885.
- 오주현·강정한 (2016).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와 개인정보 유출. *정보통신정책연구*, 23(1), 95~123.
- 유재웅·조운경 (2016). 계획된 행동 이론에 근거한 사이버 괴롭힘 행위 의도 예측요인. *한국언론학보*, 60(1), 265~289.
- 유재웅·조운경 (2018). 사이버 괴롭힘의 목격 후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언론정보연구*, 55(2), 258~289.
- 윤지혜 (2020, 8월 11일). 국내 포털은 ‘악플 전쟁’ 중인데…유튜브·인스타그램은? 악플 삭제·차단 등 사후 조치에 ‘급급’…“사전 조치 마련해야”. *이/뉴스24*, URL: [news24.com/view/1289777](http://news24.com/view/1289777)
- 이고은·정세훈 (2014). 청소년의 사이버 폭력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31(2), 129~162.
- 이근아 (2020, 8월 6일). 연예뉴스 댓글 사라졌지만 ‘악성댓글’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서울신문*, URL: <https://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806500126>
- 이승미 (2014). 서울시 청소년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성별차이 분석. *여성가족리포트*, 3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URL: <https://opengov.seoul.go.kr/research/6413949>
- 이정기·우형진 (2010). 사이버 언어폭력 의도에 관한 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 27(1), 215~253.
- 이정렬 (2019). 도덕적 정체성 형성에서 ‘도덕적 통합’의 의미. *윤리교육연구*, 53, 31~63.
- 이정민 (2018, 5월 1일). [인플루언셀] 대도서관 "1인 미디어는 Z세대 문화이자 유통의 혁신". *조선비즈*, URL: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30/2018043002751.html](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30/2018043002751.html)
- 이종관·이지은·이민영·김현이 (2018). *인터넷 개인방송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 장미향·성한기 (2007). 집단따돌림 피해 및 가해경험과 사회정체성 및 사회지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1), 77~87.
- 장현미 (2014). SNS에서 글쓰기가 공감 경험과 친 사회 행동에 미치는 효과. *한국언론학보*, 58(3), 5-35.
- 전신현 (2015). 대학생의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의 도움 행동 원인 비교. *한국청소년연구*, 26(1), 195~215.
- 전신현·이성식 (2010). 청소년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사이버 집단괴롭힘 현상의 원인 모색. *청소년학연구*, 17(11), 159~181.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9). *밀레니얼세대와 Z세대의 미디어 이용*. URL: <https://www.kisdi.re.kr/kisdi/common/premium?file=1%7C14508>
- 조윤경·유재웅 (2016). 청소년 사이버불링(cyberbullying)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방송학보*, 30(1), 111~136.
- 조재희·차유리 (2020). *1인 크리에이터를 위한 심의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차유리 (2018). 후기 청소년기 대학생 집단의 SNS 도움 행위 특성 탐색. *한국방송학보*, 32(4), 184~224.
- 최윤정 (2020). 관계적 시청의 시대. *커뮤니케이션 이론*, 16(1), 107~151.
- 한국소비자원 (2017). *신유형 1인 미디어 콘텐츠 소비 실태조사*.
- 한소희 (2020). 2차 가해 고소했지만 조롱, 신상털기...연대, 응원도. *SBS NEWS*, URL: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883375](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883375)
- 한희정·정혜진 (2014). 국내 사이버불링 연구 동향.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24), 180~217.
- 홍솔지·최윤경 (2017). 공감, 공정성, 도움행동의도 및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사이버 괴롭힘 상황에서 주변인의 도움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1(2), 39~60.

-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79~211.
- Amichai-Hamburger, Y., Wainapel, G., & Fox, S. (2002). On the internet no one knows I'm an introvert. *Cyberpsychology & Behavior*, 5(2), 125~128.
- Asencio, E. K., & Burke, P. J. (2011). Does incarceration change the criminal identity? *Sociological Perspectives*, 54(2), 163~182.
- Auemaneekul, N., Powwattana, A., Kiatsiri, E., & Thananowan, N. (2019). Investigating the mechanisms of theory of planned behavior on cyberbullying among Thai adolescents. *Journal of Health Research*, 34(1), 42~55.
- Bai, B. Y., Liu, X. X., & Kou, Y. (2016). Belief in a just world lowers bribery intention.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9(1), 66~75.
- Bandura, A., Barbaranelli, C., Caprara, G. V., & Pastorelli, C. (1996). Mechanisms of moral disengagement in the exercise of moral ag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2), 364~374.
- Bargh, J. A., McKenna, K. Y. A., & Fitzsimons, G. M. (2002). Can you see the real me? Activation and expression of the "True Self" on the Internet. *Journal of Social Issues*, 58(1), 33~48.
- Barlett, C. P. (2016). Past, present, and future theoretical developments in predicting cyberbullying behavior. In M. Wright (Ed.), *A socio-ecological approach to cyberbullying* (pp. 13~28). New York, NY: Nova Science Publishers.
- Barlett, C. P. (2017). From theory to practice: Cyberbullying theory and its application to intervention. *Computers in Human Behavior*, 72, 269~275.
- Bjorklund, D. F., & Ellis, B. J. (2014). Children, childhood, and development in evolutionary perspective. *Developmental Review*, 34(3), 225~264.
- Burke, P. J., & Stets, J. E. (2009). *Identity theory*. Oxford University Press.
- Buss, D. M. (Ed.). (2005). *The handbook of evolutionary psychology*. John Wiley & Sons.
- Campbell, M. A., Slee, P. T., Spears, B., Butler, D., & Kift, S. (2013). Do cyberbullies suffer too? Cyberbullies' perceptions of the harm they cause to others and to their own mental health.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34(6), 613~629.



- Chan, H. C., & Wong, D. S. (2019). Traditional school bullying and cyberbullying perpetration. *Youth & Society, 51*(1), 3~29.
- Cho, Y. K., & Yoo, J. W. (2017). Cyberbullying, internet and SNS usage types,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20*(10), 1464~1481.
- Crick, N. R., & Grotpeter, J. K. (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 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3), 710~722.
- Dalbert, C. (2009). Belief in a just world. In M. R. Leary & R. H. Hoyle (Eds.), *Handbook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social behavior* (pp. 288~297). Guilford Press.
- Den Hamer, A., & Konijn, E. A. (2016). Can emotion regulation serve as a tool in combating cyberbully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02*, 1~6.
- Donat, M., Umlauft, S., Dalbert, C., & Kamble, S. V. (2012). Belief in a just world, teacher justice, and bullying behavior. *Aggressive Behavior, 38*(3), 185~193.
- Eisenberg, N., & Mussen, P. H. (1989). *The roots of prosocial behavior in children*.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ao, M., Zhao, X., & McJunkin, M. (2016). Adolescents' experiences of cyberbullying: Gender, age and reasons for not reporting to adults. *International Journal of Cyber Behavior, Psychology and Learning, 6*(4), 13~27.
- Goodboy, A. K., & Martin, M. M. (2015). The personality profile of a cyberbully. *Computers in Human Behavior, 49*, 1~4.
- Gregory, A., Cornell, D., Fan, X., Sheras, P., Shih, T. H., & Huang, F. (2010). Authoritative school discipline: High school practices associated with lower bullying and victimizat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02*(2), 483~496.
- Grijalva, E., Newman, D. A., Tay, L., Donnellan, M. B., Harms, P. D., Robins, R. W., & Yan, T. (2015). Gender differences in narcissism. *Psychological Bulletin, 141*(2), 261~310.
- Hardy, S. A., & Carlo, G. (2005). Identity as a source of moral motivation. *Human Development, 48*(4), 232~256.
- Heirman, W., & Walrave, M. (2012). Predicting adolescent perpetration in

- cyberbullying. *Psicothema*, 24(4), 614~620.
- Konrath, S. H., O'Brien, E. H., & Hsing, C. (2011). Changes in dispositional empathy in American college students over tim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5(2), 180~198.
- Kowalski, R. M., & Limber, S. P. (2007). Electronic bullying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1(6), S22~S30.
- Kowalski, R. M., Giumetti, G. W., Schroeder, A. N., & Lattanner, M. R. (2014). Bullying in the digital age. *Psychological Bulletin*, 140(4), 1073.
- Lipkus, I. M., Dalbert, C., & Siegler, I. C. (1996). The importance of distinguishing the belief in a just world, willingness to accommodate and marital well-be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2, 666~677.
- Martinez-Pecino, R., & Duran, M. (2019). I love you but I cyberbully you.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4(4), 812~825.
- McKenna, K. Y. A., Green, A. S., & Gleason, M. E. J. (2002). Relationship formation on the internet. *Journal of Social Issues*, 58(1), 9~31.
- Menesini, E., & Nocentini, A. (2009). Cyberbullying definition and measurement. *Zeitschrift für Psychologie/Journal of Psychology*, 217(4), 230~232.
- Nocentini, A., Calmaestra, J., Schultze-Krumbholz, A., Scheithauer, H., Ortega, R., & Menesini, E. (2010). Cyberbullying. *Australian Journal of Guidance & Counseling*, 20(2), 129~142.
- O'Keefe, D. J. (2002). *Persuasion: Theory and research (2nd Ed.)*. SAGE Publications, Inc. CA: Thousand Oaks.
- Pabian, S., & Vandebosch, H. (2014). Behaviour to understand cyberbullying: The importance of beliefs for developing interventions. *Europ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1(4), 463~477.
- Paciello, M., Fida, R., Cerniglia, L., Tramontano, C., & Cole, E. (2013). High cost helping scenario.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5(1), 3~7.
- Paternoster, R., & Bushway, S. (2009). Desistance and the 'feared self'.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99(4), 1103~1156.
- Pepler, D., Jiang, D., Craig, W., & Connolly, J. (2008).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bullying and associated factors. *Child Development*, 79(2), 325~338.

- Rafferty, R., & Vander Ven, T. (2014). I hate everything about you. *Deviant Behavior*, 35(5), 364~377.
- Reed, A., Aquino, K., & Levy, E. (2007). Moral identity and judgments of charitable behaviors. *Journal of Marketing*, 71(1), 178~193.
- Reicher, S. D., Spears, R., & Postmes, T. (1995). A social identity model of deindividuation phenomena.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6(1), 161~198.
- Rogers, C. (1951). *Client-centered therapy*. Boston: Houghton-Mifflin.
- Sarmiento, A., Herrera-Lopez, M., & Zych, I. (2019). Is cyberbullying a group proces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99, 328~334.
- Sasson, H., & Mesch, G. (2017). The role of parental mediation and peer norms on the likelihood of cyberbullying.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78(1), 15~27.
- Shalvi, S., Gino, F., Barkan, R., & Ayal, S. (2015). Self-serving justifications.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24(2), 125~130.
- Sirgy, J. (1986). *Self-congruity*. New York: Praeger.
- Sirgy, J., & Su, C. (2000). Destination image, self-congruity, and travel behavior. *Journal of Travel Research*, 38, 340~352.
- Sirgy, M. J., Johar, J. S., Samli, A. C., & Claiborne, C. B. (1991). Self-congruity versus functional predictors of consumer behaviour. *Journal of the Academy Marketing Science*, 19, 363~375.
- Slonje, R., & Smith, P. K. (2008). Cyberbullying.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49(2), 147~154.
- Sproull, L., Conley, C., & Moon, J. Y. (2005). Prosocial behavior on the net. In Y. Amichai-Hamburger (Ed.), *The social net* (pp. 139~161).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Stryker, S., & Burke, P. J. (2000).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an identity theory. *Social Psychology Quarterly*, 63(4), 284~297.
- Sun, S., Fan, X., & Du, J. (2016). Cyberbullying perpetr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net Science*, 11(1), 61~81.
- Tosun, N. (2016). Cyberbully and victim experiences of pre-service teachers.

*European Journal of Contemporary Education*, 15(1), 136~146.

- Underwood, M. K., & Rosen, L. H. (2011). Gender and bullying. In D. L. Espelage & S. M. Swearer (Eds.), *Bullying in North American schools* (pp. 205~223). NY: Routledge.
- Valkenburg, P. M., & Peter, J. (2011). Online communication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8(2), 121~127.
- Wang, P., Wang, X., & Lei, L. (2019). Gender differences between student-student relationship and cyberbullying perpetratio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doi:10.1177/0886260519865970
- Wang, X., Yang, L., Yang, J., Wang, P., & Lei, L. (2017). Trait anger and cyberbullying among young adult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73, 519~526.
- Whittaker, E., & Kowalski, R. M. (2015). Cyberbullying via social media. *Journal of School Violence*, 14(1), 11~29.
- Wong, R. Y., Cheung, C. M., & Xiao, B. (2018). Does gender matter in cyberbullying perpetration? An empirical investigation. *Computers in Human Behavior*, 79, 247~257.
- Zsila, A., Urban, R., Griffiths, M. D., & Demetrovics, Z. (2019). Gender differences in the association between cyberbullying victimization and perpetr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Mental Health and Addiction*, 17(5), 1252~1267.

논문투고일: 2020년 08월 31일

논문심사일: 2020년 10월 14일

게재확정일: 2021년 01월 25일

## Abstract

# Cyberbullying Using One-person Media Based on Extended Model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 Focusing on the Moral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Female College Students Based on the Perspective of Identity Theory

**Yuri Cha\***

Invited Teaching Professor, Department of Communication & Media, Sookmyung Women's University

**Yun-Kyoung Cho\*\***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Liberal Arts, Gacho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ain the cyberbullying of female college students using one-person media platforms based on an extended model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 and identity theory. Bullying intentions were examined in terms of verbal violence and personal information leaking. The present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s between bullying intentions and the factors of identity theory (true self on the Net, moral disengagement, traditional bullying experiences, and predispositions regarding pro-social behaviors) to extend the model of TPB. Participants were 300 female college students who view one-person internet programs more than once a week. The findings indicated the usefulness of the extended model. The regression model for personal information leaking intention had stronger explanatory power compared to the model for verbal aggression. The results revealed that attitudes to hedonic bullying through the single-person media, moral disengagement and traditional bullying experiences had relatively strong predictive values. The belief in a just-world was found to be an insignificant moder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ttitudes of hedonic bullying and the bullying intention through single-person media. This research provides the theoretical and managerial implications of cyberbullying

---

\* yuri@sogang.ac.kr

\*\* Corresponding author, choyk@gachon.ac.kr

in personal broadcast and anti-bullying campaigns.

**KEY WORDS** One-person media • Cyberbullying • TPB • Identity theory • Moral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